



20
20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다양한 주제의 어린이 인권도서 150종을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도서명의 가나다순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용을 돕기 위한 도서명과 주제별 찾아보기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목록 작성 방법

- 도서명
- 지은이 | 펴낸곳 | 펴낸날 | 쪽수 | 주제
- 내용

2020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펴낸날 2020년 8월 | **펴낸이** 최영애 | **펴낸곳** 국가인권위원회 | **글** 바람숲그림책도서관 · 이연희 | **비매품**

주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1층 인권도서관 | **전화** 02-2125-9680~3 | **디자인** 젊은기획 02-2264-2015

*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산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각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도서 표지 그림을 수록하였습니다.



20
20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 차례 • 유아 03

• 초등학교 저학년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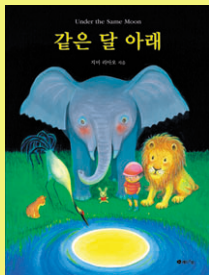
• 초등학교 고학년 37

• 찾아보기 59

2020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유아





001. 같은 달 아래

지미 리아오 글 · 그림 | 정진 옮김 | 레드스톤 | 2018년 | 32쪽 |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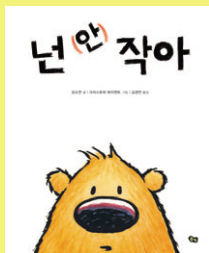
주인공 유유는 매일 밤 창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어느 날은 발에 못이 박힌 사자가 찾아오고, 어느 날은 엄니 잘린 코끼리가 찾아오고, 어느 날은 날개에 화살이 꽂힌 두루미가 찾아옵니다. 유유는 동물 친구들을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 앞에 차 한 대가 와서 멈추고, 전ظار터에 갔던 아빠가 돌아옵니다. 유유는 동물들을 치료해 준 것처럼 잘려나간 아빠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밤마다 달을 보면서 아빠를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고, 아빠 또한 달을 보면서 유유를 그리워했다고 말합니다.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달을 보며 서로를 떠올린 두 사람.



002. 내가 곰으로 보이니?

아엘 프랑켈 글 · 그림 | 황정혜 옮김 | 후즈갓마이테일 | 2019년 | 40쪽 | 관계의 소중함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놀릴 때,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책을 보라고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들려줄 말이 있다고... 에밀리아는 친구들로부터 들은 말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에밀리아를 개나 곰, 원숭이, 오리를 닮았다고 놀렸거든요. 자신이 없어진 에밀리아는 도망치고 싶고, 숨고만 싶어집니다. 그때 에밀리아의 단짝 친구 피터가 다정한 말 한 마디를 건넵니다. 힘들 때 피터처럼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친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003. 넌(안) 작아

강소연 글 · 크리스토퍼 와이엔트 그림 | 김경연 옮김 | 풀빛 | 2015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달라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잘한다'와 '못한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평균보다 좀 낮으면 놀림 당하고 높으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일상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그림책을 만나보세요. 이 그림책은 재미있는 털복숭이를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알아갑니다. 작가가 어릴 적 겪었던 일상에서 느꼈던 놀라웠던 감정들을 재미있는 그림과 글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004. 더 커다란 대포를

후타미 마사나오 글 · 그림 | 김현주 옮김 | 한림출판사 | 2011년 | 32쪽 |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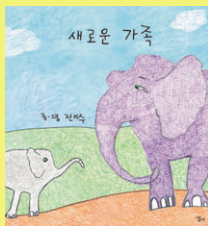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느 평화로운 나라에 대포를 무지무지 쏘아보고 싶은 임금님이 있었어요. 그 임금님은 여우에게 대포를 쏘게 되고 대포수가 늘어나고.... 하지만 이 그림책의 모두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화려하고 재미있는 그림들이 평화로운 기분을 들게 합니다. 그림책의 끝부분에서 대포를 목욕탕으로 사용하지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005. 보이지 않는다면

차이자론 글 · 그림 | 심봉희 옮김 | 웅진주니어 | 2013년 | 44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나는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 뒤, 한 아이가 공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는 것도 무섭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층마다 여덟 개가 있는 계단을 내려와 길을 걷습니다. 걷는 동안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어딘가에 부딪히기도 하지요. 또 무언가를 밟게도 돼요. 길을 가던 아이는 갑자기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 공포에 떨게 되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림책은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그려져 있는데 특히 검정으로 채워진 배경이 암흑처럼 느껴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해줍니다.



006. 새로운 가족

전이수 글 · 그림 | 엘리 | 2017년 | 56쪽 | 관계의 소중함-가족

이 책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과 관계 맺기예요. 코끼리 가족은 어느 날 장애를 가진 아기 코끼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인공인 어린 코끼리는 동생이 된 아기 코끼리가 못마땅하지만 했습니다. 아기 코끼리는 다리가 불편해서 걷는 게 느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짓궂게 장난치곤 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오게 되고, 그 후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코끼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또한 모든 코끼리는 저마다 다 다르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간다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게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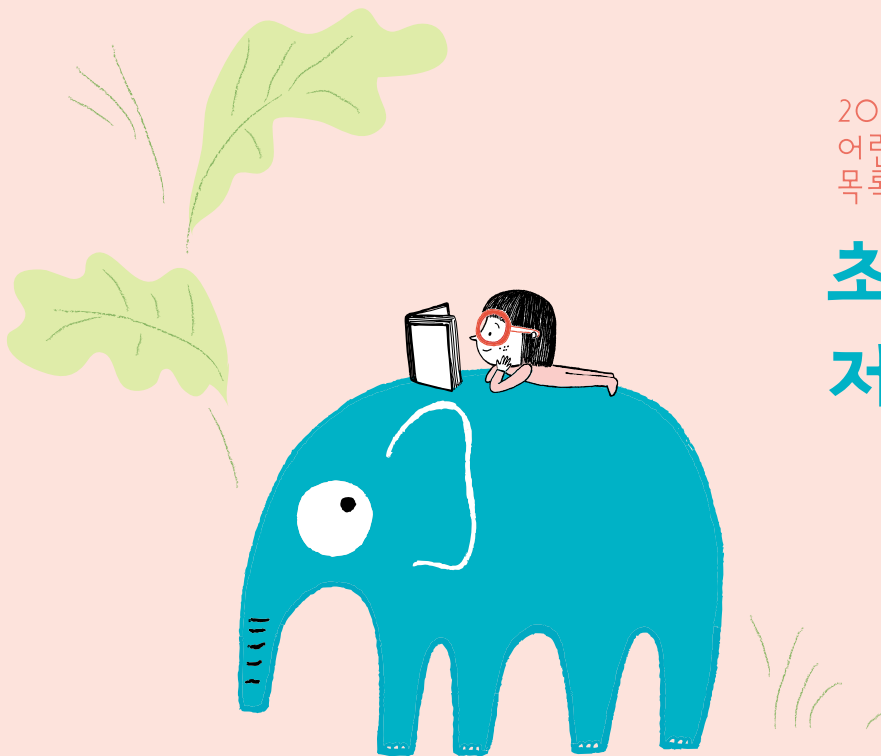
007. 어떤 느낌일까?

나카야마 치나츠 글 · 와다 마코토 그림 | 장지현 옮김 | 보림 | 2006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안 들린다는 건, 참 대단해. 그렇게 많은 것이 보이다니. 들린다는 건 그런 건가 봐. 조금밖에 볼 수 없는 건가 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물하는 그림책입니다. 장애는 그저 괴롭고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며, 보지 못할 때, 들리지 않을 때 열리는 더 풍요로운 감각의 세상이 있고, 누구나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 남과는 다른 능력이 발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0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초등학교 저학년





008. 3초 다이빙

정진호 글·그림 | 위즈덤하우스 | 2018년 | 36쪽 | 자신의 소중함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보통의 아이가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달리기에서 1등을 해 본 적도 없고, 수학도 자신 없고, 심지어 급식도 느리게 먹지요. 자신이 응원하는 야구팀은 번번이 지고 태권도 겨루기에서 이기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자신이 이기면 누군가는 져야하기 때문이지요. 대신 다이빙은 좋아해. 3초 후면 누구나 물에 빠지게 되고, 물속에서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요.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즐기는 게 더 좋은 일임을 아이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009. 6번 길을 지켜라 똑딱

김중미 글·도리리 그리고 만들·유동훈 사진 | 낮은산 | 2014년 | 60쪽 | 함께 사는 세상

동네 땅 속에서 오래 오래 살던 도깨비가 나왔어요. 왜냐구요? 자기들이 잘 살던 곳을 누가 자꾸 두드리고 땅을 파고 시끄럽게 해서 나왔지요. 이 책은 지금의 마을에 나타난 꼬마 도깨비 형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자신들과 주민들의 삶을 지키면서 서로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인형 사진 그림책입니다. 재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누고, 다양한 방법을 찾기도 하면서 마을을 지키려는 움직임들이 눈물겹도록 신나고 대견스럽습니다. 개발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과 사람들의 욕심으로 파괴되는 자연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책입니다.



010. 가난한 사람은 왜 생길까요? - 처음 이야기해 보는 세계의 빈곤 문제

질리안 로버츠, 제이미 캐셋 글·제인 하인릭스 그림 | 서남희 옮김 | 현암주니어 | 2018년 | 34쪽 |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혹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이 책은 나와 다른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책이에요. 길거리에 사는 사람, 빈곤은 어떤 것인지, 난민은 왜 생기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도 가슴 속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존재임을 알려주지요.



011. 가만히 들어주었어

코리 도어펜드 글 · 그림 | 신혜은 옮김 | 북뱅크 | 2019년 | 36쪽 | 관계의 소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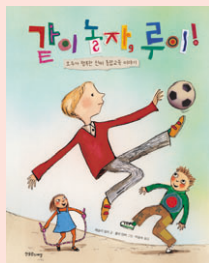
테일러에게 소중했던 어떤 것이 무너졌을 때 친구들이 다가와서 위로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다 다릅니다. 말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 속상했던 일을 떠올려보게 하고, 웃거나 숨어버리라고 충고를 합니다. 주인공 테일러는 어떤 것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끼에게만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토끼는 자신의 방식으로 위로하지 않고 테일러가 이야기를 하고픈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줬거든요.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어쩌면 기다려주고, 가만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테일러처럼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겠지요.



012. 강이

이수지 글 · 그림 | 비룡소 | 2018년 | 80쪽 | 동물권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며 철장 안에 갇혀 지내던 유기견 검은 개는 아랫집에 언니에 의해 구조됩니다. 이후 산이와 바다의 집으로 입양을 가게 되고 아이들의 가족이 되지요. 검은 개는 강이라는 이름을 얻고 더 이상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책의 그림은 검은 오일파스텔로만 그려져 있는데, 먹의 단정한 선으로 산이와 바다, 강이의 행복하고 단란한 시간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함께 뛰어 놀고 꽃밭에 누고 눈발을 뒹구는 일상에서는 즐거움이, 산이와 바다가 잠시 떠난 사이 아이들을 기다리는 강이의 뒷모습에서는 아련한 그리움이 물씬 느껴져요. 그림만 보아도 아이들과 강이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 하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읽히는 책입니다.



013. 같이 놀자, 루이! - 모두가 행복한 진짜 통합교육 이야기

레슬리 일리 글 · 폴리 던바 그림 | 이승숙 옮김 | 한울림스페셜 | 2015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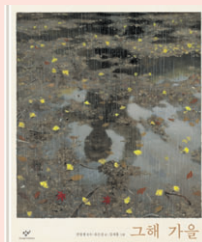
우리랑 좀 다른 아이와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입니다. 루이라는 아이는 우리와는 좀 다르고, 우리는 하면 안 되는 일도 루이에게는 허용이 되는 예외인 법칙들도 있어요. 책 속 주인공은 말하지요. '어떨 땐 좀 화가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반엔 조금 다른 규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이를 위해서요!' 루이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 책 속의 아이들은 함께 사는 세상의 의미를 느껴 갑니다.



014. 거리에 핀 꽃

존아노 로슨 글 · 시드니 스미스 그림 | 국민서관 | 2015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

젖빛 거리에 모자 달린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아빠인 듯한 한 남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호기심이 가득 담긴 아이는, 보물찾기 하듯 거리 곳곳에서 자라고 있는 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하나 둘 손에 모아 집니다. 그렇게 모은 꽃을 아이는 누군가에게 또 하나 둘 나누어 주는데요, 그 덕에 아이가 지나 간 거리는 생동감 있는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글자가 없어도 아이의 표정, 아이 행동, 다양한 방식의 화면 구성이 읽는 재미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015. 그해 가을

권정생 원작 | 유은실 글 · 김재홍 그림 | 창비 | 2018년 | 56쪽 | 함께 사는 세상

이 책은 권정생 작가의 산문 '그해 가을'을 동화로 만든 그림책으로, 권정생 작가가 교회 문간방에 살면서 만난 창섭이와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지체 장애와 지적 장애가 있는 열여섯 살 창섭이는 외톨이에요. 울 줄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는 창섭이가 어느 날 주인공인 나를 찾아옵니다. 둘은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것도 잠시, 창섭이와 나는 이별을 하게 돼요. 안타깝게 창섭이를 떠난 보낸 나는, 창섭이와의 이별을 통해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귀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016. 긴 여행 - 평화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

프란체스카 산나 글 · 그림 | 차정민 옮김 | 풀빛 | 2017년 | 48쪽 | 평화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작가가 난민 수용소에서 만난 소녀와 소녀의 가족이 실제로 겪은 것을 동화로 만든 이야기로, 난민과 인권, 평화에 대한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소녀가 살았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소녀는 전쟁으로 아빠를 잃게 되지요. 소녀 가족은 정든 집을 버리고 안전한 곳을 찾아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주 적은 짐만 가지고 목숨을 걸고 떠나는 그 길은 힘들고 고단하기만 한데요, 과연 그 길 끝에서 소녀 가족은 평화로운 보금자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017. 나 좋은 점 가득

요시모토 유키오 글 · 마루야마 사토시 그림 | 김영주 옮김 | 꿈터 | 2016년 | 36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아이들이 쓴 글에는 진솔함이 담겨 있기 마련이지요. 이 책에 글을 쓴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일본에서 살게 된 이주배경 가정 아이들인데요, 아이들은 일본어를 배우면서 서툰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글 속에는 삼각김밥, 파리, 냉장고, 엄마, 딸돌림, 국적, 정 체성까지 다양한 소재가 들어 있습니다. 글은 짧고 경쾌하지만 그 안에는 이주배경 가정 아이들이 갖는 복잡한 정서가 담겨 있지요. 그렇다고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정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아팠던 경험을 떠올리며 친구를 응원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작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담겨있어요.



018. 나는 놀고 창조하고 상상할 권리가 있어요! - 그림으로 보는 유엔 아동권리

알랑 세레 글 · 오렐리아 프롱티 그림 | 이경혜 옮김 | 고래이야기 | 2020년 | 44쪽 | 인권의 이해

이 책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름과 성을 가질 권리, 먹고 마실 권리, 따뜻한 집에서 살 권리,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배울 수 있는 권리, 자신이 가진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고, 놀고 창조하고 상상할 권리가 아이들에게 있음을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담긴 내용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요. 책을 읽다보면 아동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잠시 슬퍼지기도 해요.



019. 나는 바다 위를 떠도는 꼬마 난민입니다

니콜라우스 글라타우어 글 · 베레나 호호라이트너 그림 | 김정민 옮김 | 우리학교 | 2019년 | 40쪽 | 평화

다니엘 가족과 고양이 이티는 멈춰버린 도시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닷가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다니엘 가족은 간신히 보트 하나를 타고 갈 수 없는 곳으로 항해를 떠납니다. 그러나 넓고 넓은 바다에 함께 출발했던 보트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밤엔 커다란 파도가 보트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기도 하고, 다니엘의 누나 수지는 바다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니엘 가족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난민환영'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해수욕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또 다시 어디론가 길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가족을 반겨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요. 다니엘 가족은 과연 자신들을 반겨줄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안전하게 정착을 하게 될까요?



020. 나는 보이지 않아요

안나 플라트 글 · 리 쇠데르베리 그림 | 권지현 옮김 | 씨드북 | 2018 | 32쪽 | 관계의 소중함

파도타기, 우표 모으기, 행성 공부하기 등을 좋아하는 사하르. 하지만 사하르가 그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아무도 사하르를 보지 못하거든요. 친구 생일파티가 있던 어떤 날 이후로요. 친구 사탕을 훔쳐 먹어도, 영화관에 몰래 들어가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투명하게 지내던 사하르는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다시 밤하늘 별처럼 빛나게 되지요. 만약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보이는 데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투명한 채 취급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책은 글과 그림을 통해 사하르가 투명인간이었을 때, 친구를 만나는 순간, 친구와 신나게 놀 때 등의 감정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따돌림 받는 이의 감정을 공감할 기회를 갖게 합니다.



021. 나는 소심해요

엘로디 페로탱 글 · 그림 | 박정연 옮김 | 이마주 | 2019년 | 36쪽 | 자신의 소중함

사람들은 저마다 성향이 다 다르지요. 활발한 사람도 있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있고, 썩썩하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굳이 자신의 성향이나 기질을 바꿀 필요는 없지요. 이 책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 줍니다. 주인공은 소심한 성격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누군가로부터 소심함의 좋은 점에 대해 듣게 되고 그때부터 자신의 소심함을 숨기지 않게 돼요. 이 책을 읽고 난 후 나의 성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그것의 좋은 점을 찾아보아요.



022. 나무가 자라는 빌딩

윤강미 글 · 그림 | 창비 | 2019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환경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가 많아졌지요. 어떤 날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서 바깥 활동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고요. <나무가 자라는 빌딩>에 나오는 주인공 아이도 미세먼지 때문에 집 안에 갇히게 돼요. 아이가 있는 방의 창 너머에서는 타워 크레인들이 아파트를 짓고 있고요. 그것을 보던 아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꽃이 자라는 놀이터, 비밀의 정원, 식물연구소와 코끼리 모양의 온실, 자신의 집인 나무가 자라는 빌딩 등이 아이의 손끝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데요. 도시 곳곳에서 꽃과 나무가 자라고 사람과 동물들이 평화롭게 어울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화려한 색채와 환상적인 그림이 책을 보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023. 나미타는 길을 찾고 있어요

마르 파쿰 글 · 마리아 히론 그림 | 엄혜숙 옮김 | 풀과바람 | 2016년 | 44쪽 | 함께 사는 세상

나미타는 가족과 함께 삽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나미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할 뿐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나미타는 엄마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방을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고, 동생들을 돌보고, 학교를 청소하고, 심부름을 합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나미타에게 또 다른, 새로운 역할을 강요합니다. 나미타는 그 역할만은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권리와 자유를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나미타처럼 세계 곳곳에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책을 읽으며 억압된 삶을 사는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해 보아요.



024.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할 거예요

아나미 베르브룩스 글 · 그림 | 지명숙 옮김 | 뜨인돌어린이 | 2012년 | 44쪽 | 아동성폭력

이 그림책 속의 작은 새는 계속되는 큰 새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만 강압적 폭력은 피하기 힘들었어요. 그때 작은 새는 부모님의 말에 힘을 얻어 사실을 말하게 되고 큰 새는 벌을 받게 됩니다. 커다란 비밀을 갖게 된 어린 새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적절한 대응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아동 성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 아이와 부모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힘은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엄마 아빠가 널 지켜 줄 거야."라는 믿음은 말 뿐 아니라, 어른들이 평소에 행동으로도 표현했을 때 가능합니다.



025. 나의 독산동

유은실 글 · 오승민 그림 | 문학과지성사 | 2019년 | 48쪽 | 함께 사는 세상

주인공 은이가 사는 독산동은 어른들의 일터인 공장과 살림집, 아이들의 놀이터가 한데 어울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다가 다치면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한테 달려가고, 어른들이 만들다 불량이 난 인형은 아이들 차지가 됩니다. 아이들은 골목에 누비며 놀고 저녁이 내리면 집집마다 노란 불이 켜지고 가족들의 단란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고만고만한 집들이 정겹게 붙어있고, 고만고만한 이웃들이 정답게 살아가는 독산동의 모습이 읽는 사람 마음에도 따뜻함을 불러 넣어 줍니다. 이야기만큼이나 그림도 참 정겹습니다.



026. 난민 친구가 왔어요

엘리자 그라벨 글 · 그림 | 박진숙 옮김 | 북뱅크 | 2020년 | 32쪽 | 평화

2018년에 예멘에서 온 난민 500여명이 제주도에 도착한 적이 있지요. 그때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의견들이 많았어요. 난민들은 왜 이처럼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일까요? 이 책에는 난민은 어떤 사람인지, 왜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야 했는지, 난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책 뒷부분에는 작가가 만난 난민 아이들의 말과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난민이었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027. 내 마음이 들리나요

조아라 그림 | 한솔수북 | 2017년 | 52쪽 | 자신의 소중함

일상에서 소리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겠지요. 이 책에는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폭력 없는 우리 학교' 같은 표어나 표지판에 있는 게 다예요. 글자는 그냥 표시일 뿐이지 이야기를 전달해 주지 않지요. 이 책은 주인공 아이가 학교로 가는 길부터 시작합니다. 등굣길의 아이는 다른 아이들 뒤를 따라 가거나 혼자 건너나 합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외따로 놀입니다. 그런 아이 모습이 외롭고 쓸쓸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글자 없는 그림책의 매력이기도 하지요.



028. 내 엄마 아빠가 되어 줄래요?

조아라 글 · 그림 | 고래이야기 | 2020년 | 34쪽 | 관계의 소중함~가족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진 태오가 입양되기까지의 과정이 감동적으로 그려진 책입니다. 특히 배경을 생략한 그림이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표정과 행동에 집중케 하여 태오의 감정에 보다 몰입하게 합니다. 아기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태오는 아기를 입양하러 온 부부들을 볼 때마다 혹시 아빠 엄마가 아닐까 기대를 하지만 그들은 다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반복되자 태오는 아빠 엄마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부가 찾아와 태오에게 말을 겁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태오에게 손을 내미는 부부. 태오가 그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여는지 지켜보세요.



029. 내일 또 싸우자!

박종진 글 · 조원희 그림 | 소원나무 | 2019년 | 44쪽 | 관계의 소중함

우리는 살면서 싸움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싸움을 지켜보게도 되는데요, 사람들은 왜 싸우는 걸까요? 이 책의 주인공 상두와 호두 형제도 싸움을 해요. 방학 때 놀러 간 할아버지 집에서요. 할아버지는 싸움을 하는 둘을 목격하고는 이기려고 다투는 싸움 말고, 싸우면 싸울수록 또 싸우고 싶어지는 싸움을 하게 해요.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싸우던 형제는 마지막에는 깔깔깔 웃으며 신나합니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상두와 호두 형제에게 어떤 싸움을 시킨 걸까요? 우리도 한번 상두와 호두 형제처럼 신나게 싸워볼까요?



030. 내일의 동물원

에릭 바투 글 · 그림 | 박철화 옮김 | 봄별 | 2018년 | 40쪽 | 동물권

동물원에 가면 많은 동물들을 만날 수 있지요.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동물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인 우리들에게는 큰 즐거움이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은 어떨까요? 사냥하지 않아도 편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어서 기쁠까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돼서 행복할까요? 〈내일의 동물원〉은 동물들이 살아야 할 곳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동물원이 아니더라도 동물들의 고향인 정글이, 사바나의 초원이, 아프리카 강이, 북극이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책을 읽고 지구에 살아가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아요.



031. 너무너무 공주

허은미 글 · 서현 그림 | 만만한책방 | 2018년 | 36쪽 | 자신의 소중함

예쁜 공주 말고 너무너무 평범한 공주 이야기. 임금님이 늘그막에 낳은 딸 공주는 외모도, 성격도, 지능도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냥 딱 중간이예요. 임금님은 그런 공주가 예뻐오면, 착했으면, 똑똑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수염 세 가닥을 얻어 소원을 빕니다. 대신 임금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하지만 임금님의 바람과 달리 공주는 예뻐져도, 착해져도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생기를 잃을 뿐이예요. 이 책은 공주를 통해 사람은 자기답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자기다운 것이 더 빛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032. 노각 씨네 옥상 꿀벌

이혜란 글·그림 | 창비 | 2016년 | 44쪽 | 함께 사는 세상-환경

상상해 보세요. 만약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꿀벌이 사라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먹거리가 줄어들어 결국 사람들의 생존도 위협을 받게 되겠지요. 이 책은 꿀벌의 중요성을 깨닫고 꿀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시에서 꿀벌을 키우는 노각 씨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033. 누나에겐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

마르코 베레토이 카라라 글·치아라 카레르 그림 | 주효숙 옮김 | 한울림스페셜 | 2017년 | 28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우리 누나는요, 번덕스럽고 시끄럽고 화를 내고 세상 무엇보다 조용하고 어떨 때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나조차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누나가 자폐증을 앓고 있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ですよ. 그리고 그건 조금 다를 뿐이라는 것ですよ. 세상 모든 사물이 똑같은 건 없듯이 사람도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누나도 단지 다를 뿐인 것이지요.



034. 니나 - 전설의 재즈 가수 니나 시몬이 들려주는 꿈과 음악 이야기

알리스 브라에르-아케 글·브루노 리앙스 그림 | 고우리 옮김 | 이븐비 | 2017년 | 36쪽 | 차별·편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니나 시몬은 뛰어난 재능으로 줄리어드 음대에 입학할 해요. 하지만 클래식 연주자가 되고 싶었던 바람과 달리 흑인이라는 이유로 연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재즈 가수로 데뷔하게 되지요. 이 책은 재즈 가수이자 인권운동가였던 니나 시몬이 자신의 아이에게 미국의 인종 차별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음표들이 서로 어울려 리듬이 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완성되듯이, 사람들도 색깔 구분 없이 모두 어우러지는 세상을 꿈꾼 니나의 생각이 담겨있답니다. 더불어 흑백의 목탄화가 인상적인 그림책입니다.



035. 도둑맞은 이름

호세 안토니오 타시에스 글 · 그림 | 성초림 옮김 | 푸른숲주니어 | 2013년 | 36쪽 | 관계의 소중함

나는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책은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빨간 사과’와 ‘초록색 배’ 그리고 ‘진짜 얼굴’이라는 재미있는 상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의 결말을 통해 학교 폭력을 지켜보기만 했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학교 폭력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036. 돼지꿈

김성미 글 · 그림 | 북극곰 | 2017년 | 44쪽 | 자신의 소중함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곧잘 이런 말을 하죠. 먹고 살 고민 없이 공부만 하니 얼마나 좋냐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들어간 순간부터 삶의 고민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닐 이유를 알 수 없는 학교를 다녀야 하고, 거기다 학교 끝나면 학원도 가야하고 말이지요. 그러느라 도무지 놀 틈은 생기지 않고, 이 책은 학교도 학원도 가지 않고 돼지처럼 맘대로 놀고만 싶은 초등학생의 심리가 재밌게 그려져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본다면 ‘맞아 맞아’ 하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될 것입니다.



037. 뒷집 준범이

이혜란 글 · 그림 | 보림 | 2011년 | 38쪽 | 함께 사는 세상

친구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혹 내가 너무 경계하는 편은 아닌가요? 내 또래의 아이들은 아무 사심 없이 내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어요. 왜냐면요, 함께 놀아야 신나고 즐겁거든요. 이 그림책은 새로 이사 와서 섯뜻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는 뒷집 아이에게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마음을 열어주면서, 서로 마음의 벽이 없이 다 같이 놀아야 진짜로 재미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038. 떨어질 수 없어

마르 파봉 글 · 마리아 지홍 그림 | 고양이수염 옮김 | 이마주 | 2018년 | 52쪽 | 차별 · 편견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파란 운동화입니다. 두 짝이 만나 한 쌍이 된 존재들이지요. 파란 운동화는 소녀를 만나 함께 달리고, 뛰어놀고, 잠을 자고, 춤을 춥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운동화 한 짝이 망가지게 되고, 파란 운동화는 쓸모가 없다며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도 운동화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며 함께 있길 원하지요. 운동화의 바람과 달리 그들은 서로 떨어지게 되고, 멀쩡한 운동화는 차에 실려 어딘가로 가며 계속 자신은 쓸모가 없어졌다며 한탄을 합니다. 하나는 망가지고 하나는 짝을 잃어버린 운동화. 정말 쓸모없는 걸까요? 쓸모없다며 슬퍼하는 운동화가 어떻게 다시 쓸모 있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039.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하이타니 겐지로 글 · 초 신타 그림 | 햇살과 나무꾼 옮김 | 양철북 | 2006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

강아지 로쿠베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것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발견합니다. 깊고 캄캄한 구덩이에 빠진 로쿠베는 꼼짝하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들이 로쿠베를 구하기엔 힘이 부칩니다. 엄마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엄마들은 와글와글 시끌시끌 떠들다가, 와글와글 시끌시끌 거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골프채를 들고 지나가던 남자 어른도 구경만 하고 그냥 가버리지요. 아이들은 로쿠베를 구할 궁리를 하다가 로쿠베 친구 쿠키를 데려옵니다. 쿠키라면 로쿠베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요. 구덩이에 갇힌 로쿠베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그 마음 또한 귀하게 느껴집니다.



040. 마지막 뉴스

서정홍 글 · 선현경 그림 | 웃는돌고래 | 2016년 | 36쪽 | 함께 사는 세상

상상해 보셨나요? 농부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세상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농산물을 수입해 오면 되지'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이 책은 농사짓는 시인 서정홍의 시를 그림책으로 만든 건데요, 농부들 파업으로 도시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상상해 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살리는 길을 함께 고민해 보아요.



041. 메리는 입고 싶은 옷을 입어요

키스 네글리 글 · 그림 | 노지양 옮김 | 윈더박스 | 2019년 | 41쪽 | 자신의 소중함

믿기지 않겠지만 여성이 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메리가 살았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소녀들이 무겁고 답답하고 숨쉬기 힘든 드레스를 입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 메리만 빼고요. 메리는 치마 대신 바지를 입기로 했는데 그건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아나니 다름과 어른들은 관습을 깬 메리에게 계란을 던지고 비난하지요. 하지만 메리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자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내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이 책은 1800년대에 미국 뉴욕 주에 살았던 메리 에드워즈 워커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042. 목기린 씨, 타세요!

이은정 글 · 윤정주 그림 | 창비 | 2014년 | 55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보통 사람들과 좀 달라 공공시설을 사용하는데 좀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 흠, 키가 너무 커서 버스 타기가 힘들지는 않았나요? 남들과 조금 다르게 목이 긴, 주인공 목기린 씨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 함께 움직입니다.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해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포용과 개선을 모색하는 신선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043. 뭔가 특별한 아저씨

진수경 글 · 그림 | 천개의바람 | 2018년 | 44쪽 | 함께 사는 세상

긴 머리 남자, 치마 입은 남자, 화장하는 남자, 애교 있는 남자. 만약에 이런 남자를 실제로 만난다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남자를 색다른 눈으로 바라보곤 하지요. 남자는 그런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에 있으니까요. 이 책의 주인공 다정 아저씨에게도 사람들이 특별한 시선을 보내곤 해요. 특히 다정 아저씨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은 더 그래요. 다정 아저씨가 머리카락을 아주 길게 길렀거든요. 그런데요, 사장님도 나중에 다정 아저씨처럼 머리를 기르게 돼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지요.



044. 미움

조원희 글·그림 | 만만한 책방 | 2020년 | 40쪽 | 자신의 소중함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이 말은 들은 아이는, 자기도 그 남자애를 미워하기로 해요.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자는 내내 아이 마음속에는 ‘꼴도 보기 싫다’고 한 남자아이에 대한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힘도 세지고 점점 자라기도 하지요. 그러다 아이는, 언젠가 팔에 부스럼이 났을 때 엄마가 해 준 말을 떠올리게 돼요. “신경 쓰여도 만지지 마. 그래야 낫는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오히려 그 미움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괴로워지곤 하지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게 나를 위로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045. 바닷가 탄광 마을

조안 슈워츠 글·시드니 스미스 그림 | 김영선 옮김 | 국민서관 | 2017년 | 52쪽 | 함께 사는 세상

바닷가 탄광마을에 사는 주인공 ‘나’를 통해 대를 이어 광부가 되는 사람들의 일상을 잔잔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특히 그림이 인상적이에요. 소년인 ‘나’가 아침을 맞고, 집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친구들과 놀거나 엄마 심부름을 가는 풍경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마을 앞에 펼쳐진 바다는 더 없이 아름답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일하는 탄광은 어둡고,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을 만큼 협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광부들이 일하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화로운 마을과 어둠에 갇힌 탄광의 대비는 주인공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고요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광부가 되어야 하는 주인공의 안타까운 마음ेल요.



046. 바람은 보이지 않아

안 에르보 글·그림 | 김벼리 옮김 | 한울림어린이 | 2015년 | 48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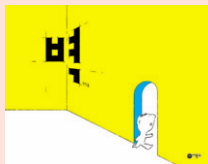
바람은 어떤 색일까요? 이 그림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색을 찾아 나선 앞이 보이지 않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책의 소년과 함께 감각으로 바람을 느껴보세요. 바람은 무슨 색일까요? 소년이 만나는 많은 다양한 대답들에서 우리는 바람의 색을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의 색은 다 달라요. 하지만 어쩌면 다 같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람은 무슨 색이죠? 바람의 색깔은 내 마음과 같아요. 지금 바람을 느껴보세요.



047. 바람을 가르다

김혜온 글 · 신슬기 그림 | 샘터사 | 2017년 | 44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이 책에는 세 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린 〈바람을 가르다〉에서는 뇌병변 장애 때문에 한 번도 달려보지 못한 찬우와, 찬우에게 달릴 때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용재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천둥 번개는 그쳐요?〉에서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오빠를 둔 해미의 고민과 힘들기, 〈해가 서쪽에서 뜬 날〉에서는 자폐성향이 있어서 낮선 환경을 힘들어 하는 유빈이와 유빈이와 친해지기 위해 변신을 꾀하는 담임선생님 모습이 그려집니다. 반 친구들은 유빈이를 장애를 가진 특별한 아이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유빈이의 다름을 이해하고 유빈이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줍니다. 작가가 이야기 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스미고 물들었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048. 벽

정진호 글 · 그림 | 비룡소 | 2016년 | 44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노랑과 파랑으로 된 네모난 벽 앞에 아이가 서 있습니다. 아이는 벽으로 다가가 창문을 들여다보더니, 안으로 들어가 창을 통해 밖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가가면 벽은 멀어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안이 밖이 되고, 불룩한 벽은 또 오목한 벽이 되고, 오른쪽은 또 왼쪽이 되어버리지요. 아이는 동그란 창에 기대어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바뀌는 것은 벽이 아니라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것일요. 벽은 그대로인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벽도, 사람도,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에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잖아요.



049. 비밀 -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

허은미 글 · 박현주 그림 | 문학동네 | 2012년 | 40쪽 | 아동성폭력

누구나 비밀은 있지요. 하지만 아픈 비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혹 그런 비밀이 생기면 그 비밀은 없애야 해요. 누군가에게 잘 풀 수 있게 이야기 해보세요. 이 그림책은 성폭력 피해 상황에 놓인 아이의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픔이 없는 세상은 없을까요? 언제나 당당하게 나의 생각과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050. 빨간 볼 - 나도 모르게 시작된 왕따 이야기

안 더 킨더르 글·그림 | 정신재 옮김 | 내인생의책 | 2014년 | 40쪽 | 관계의 소중함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네 의도와 다르게 일이 크게 진행되어 난감한 적 없나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지요. 이 책 속의 주인공도 그냥 재미있고 신기해서 친구에게 한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크게 확대되어서 그 친구를 왕따 시키는 결과를 낳았지요. 이제 그만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아요. 어쩌죠? 솔직하게 말하고 조금씩 풀어가야 할거예요. 이 책을 읽다보면 좋은 방법이 숨어있을 거예요.



051.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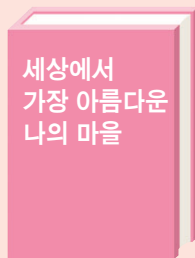
스테판 미예루 글·세바스티앙 세브레 그림 | 박나리 옮김 | 책속물고기 | 2016년 | 48쪽 | 함께 사는 세상
세상이 하나의 마을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만들어지면서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집을 만들고 도시가 생기고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쉴 새 없이 돌립니다. 하지만 기계를 돌려도 욕심은 끝이 없고, 결국 기계를 돌려야 할 석유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게 돼요. 사람들은 불편한 삶 속에서 기쁨을 찾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책 속에서 찾아 보세요.



052. 세상에 둘도 없는 반짝이 신발

제인 고드윈 글·안나 워커 그림 | 신수진 옮김 | 모래알 | 2018년 | 40쪽 | 자신의 소중함

라라는 오빠가 셋이에요. 첫째 오빠가 입던 옷이 둘째 오빠, 셋째 오빠를 거쳐 라라에게까지 와요. 라라는 그렇게 물려받은 옷을 자기 방식으로 입고 다녔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라라는 신발만큼은 새 신발을 신어요. 물려받지 않은 것은 속옷과 신발뿐이거든요. 어느 날 라라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반짝이 신발을 사게 되지만, 가족들과 소풍을 갔다가 한 짝을 잃어버려요. 슬프게도, 그래서 나머지 한 짝을 버렸냐고요? 그럴 리가요? 라라잖아요. 한 짝만 남은 반짝이 신발을 아주 잘 신고 다녔어요. 역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요. 그러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05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을

고바야시 유타카 글·그림 | 김지연 옮김 | 미래M&B | 2003년 | 48쪽 | 평화

꽃 피고 맛난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고 새들은 날아다니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 어느 날 전쟁으로 대포소리가 나고 내 옆에 사람들이 죽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우리 나라 가까이 아시아 아프가니스탄의 한 평화로웠던 마을이 전쟁으로 없어졌어요. 가족 중 형제도 없어졌어요. 전쟁은 끔찍해요. 이 그림책은 전쟁으로 아름다웠던 마을이 없어져버려서 그때 그 마을을 그리워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의 열쇠를 안겨줍니다.



054.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

매튜 코텔 지음 | 비룡소 | 2018년 | 56쪽 | 함께 사는 세상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는 빨간 망토를 입은 소녀가 학교 다녀오는 길에 무리에서 떨어진 새끼 늑대를 만나고, 새끼 늑대에게 엄마를 찾아주는 이야기예요. 새끼 늑대에게 엄마를 찾아준 소녀는 기운을 잃고 눈발에 쓰러지는데요, 이때 늑대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소녀를 도와줘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우정이 감동스럽게 느껴지지요. 이 책은 글이 없어요. 그래도 탄탄하게 짜여진 이야기 구조가 긴장감을 가지고 책을 읽어나가게 합니다. 또한 등장인물에 대한 세밀한 표현이 안타까움, 긴장, 급박함, 안도감 등의 감정을 잘 전달해 주고요. 펜, 잉크, 수채물감으로 그려진 그림, 근경과 원경의 적절한 배치가 책을 보는 재미를 더해 줍니다.



055.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

국제사면위원회 글·크리스 리텔 그림 | 김지연 옮김 | 별글 | 2018 | 40쪽 | 인권의 이해

이 책에 글을 쓴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는 국제적으로 인권 활동을 하면서 인권 침해와 정의를 연구하는 국제 인권단체예요. 인권은 공기와 같은 것이예요. 평소에는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인권을 침해당하면 그것이 매우 소중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 책에는 인권과 관련된 16가지 단어가 담겨있어요. 생존, 보호, 자유, 안전, 공정, 정의 등... 이러한 단어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두어야 할 말들이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지요. 여기에 담긴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나와 타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요.



056. 소피가 속상하면, 너무너무 속상하면

폴리 뱅 글 · 그림 | 박수현 옮김 | 책읽는곰 | 2015년 | 40쪽 | 관계의 소중함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소피, 자기가 좋아하는 너도밤나무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타고 오르고, 보고, 만졌던 느낌을 최대한 그림에 살려내려 애쓰지요. 하지만 친구들은 소피 그림을 보고 과장하며 키득거립니다. 속이 상한 소피는 사라지고만 싶습니다. 지은이는 소피와 친구들을 통해 사람들 저마다 표현 방식이 다름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057. 숨바꼭질

김정선 글 · 그림 | 사계절 | 2018년 | 52쪽 | 평화



전쟁으로 평화롭던 일상이 깨지고 친구와 이별하게 된 소녀 이야기. 수채화풍의 담백한 그림에서는 발랄한 글과 달리 아련한 슬픔이 묻어납니다. 자전거포 집 이순득이와 양조장 집 박순득이는 둘도 없는 단짝이지만 전쟁이 나고 피난을 떠나면서 서로 헤어지게 되지요. 전쟁이 끝나고 자전거포 집 이순득이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박순득이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책은 피난을 떠나는 박순득이의 모습을 숨바꼭질 노래에 맞춰 보여줍니다. 콩밭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고, 한강을 건널 땐 참방거리고, 밤길을 걸으며 달님에게 눈을 맞추는 박순득이의 표정에선 전쟁의 참혹함을 읽기 어렵습니다. 아픔 속에도 희망이 있음을 순득이를 통해 느끼게 됩니다.

058. 아무도 지나가지마!

이자벨 미뇨스 마르틴스 글 · 베르나르두 카르발류 그림 | 민찬기 옮김 | 그림책공작소 | 2016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군인 한 명이 책 가운데 서서 오른쪽으로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묻지만 군인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장군님을 위해서 오른쪽을 비워 두어야 한다는 말만 합니다. 왼쪽은 미어터질 지경이 되지요. 반대로 오른쪽 페이지는 하얗게 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불리 앞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우연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 계기를 만드는 건 아이들입니다. 부당한 권력에 눈치 보지 않는 아이들이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부당함을 알지만 커다란 권력 앞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참기만 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법이지요.



059. 알사탕

백희나 글 · 그림 | 책읽는곰 | 2017년 | 48쪽 | 관계의 소중함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은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포기했던 적이 있나요? <알사탕>의 주인공 동동이야 그래요. 동동이는 친구들에게서 멀지않은 곳에서 혼자 놀아요, 혼자 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표정은 그래 보이지 않아요. 동동이는 새 구슬을 사러 문구점에 가고, 거기서 구슬 대신 알사탕을 사지요. 집에 와서 알사탕을 하나씩 꺼내어 먹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숲에서 만난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같이 놀자고. 도대체 알사탕에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친구 사귀기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어쩌면 이 책은 알사탕이 되어줄지도 몰라요.



060. 어디 있니, 월버트?

바두르 오스카르손 글 · 그림 | 권루시안 옮김 | 진선아이 | 2020년 | 38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쥐는 누군가와 숨바꼭질을 합니다. 술래인 쥐는 숫자를 센 뒤 숨어있는 친구를 찾아보지만, 친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이빨 악어가 쥐의 친구 월버트를 함께 찾아주겠다고 하지만 찾지 못하지요. 결국 월버트를 찾아낸 건 쥐였어요. 악어는 월버트를 보지 못하거든요. 셋은 함께 숨바꼭질을 합니다. 하지만 악어는 여전히 월버트를 보지 못하고, 쥐가 도와주어야만 월버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으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거라는 걸, 세 친구를 보며 느끼게 됩니다.



061. 얼음 땡!

강돌 글 · 그림 | 웅진주니어 | 2014년 | 46쪽 | 관계의 소중함

놀이에서 깽두기를 해본 적 있나요? 깽두기는 왕따가 아니에요. 놀이에서 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짝이 맞지 않을 때 모두 함께 놀기 위해 만들기도 해요. 이 그림책은 깽두기가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지만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상살이에서 깽두기는 소중하답니다. 놀이를 무난하게 이끌 기도 하고,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지요. 차별없이 모두 어울리는 놀이를 해요, 우리.

062. 엄마 왜 안 와

고정순 글 · 그림 | 웅진주니어 | 2018년 | 40쪽 | 관계의 소중함-가족



하늘에 붉은 노을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왜 안 오느냐며 혼잣말을 하고, 엄마도 회사에서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속말을 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일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구토하는 코끼리, 길 잃은 동물 친구들, 자꾸만 울어대는 새들, 화가 난 꾀꾀이 오리가 엄마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룡 뱃속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당도하기까지 엄마의 퇴근길이 참으로 숨 가쁘게 그려지고 있어요. 엄마가 보낸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 지를 짐작케 하지요.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어린 시절 보았던 퇴근 후의 엄마 모습을 들려줍니다. 고단했을 엄마 모습ைய요. 그래서인지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기 위해 애쓰는 엄마 모습이 애잔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063. 엄마는 너를 위해

박정경 글 · 조원희 그림 | 낮은산 | 2019년 | 36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세상의 많은 엄마들이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하죠. 이 책의 화자인 엄마도 그래요. 아이를 위해 딸기오름과 100층짜리 빌딩과 한 줄로 가는 길을 만들겠다고 해요. 그런데 책을 읽다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조금은 특별해 보이고, 아이가 독특한 세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맞아요. 이 책은 작가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이를 생각하며 쓴 글이에요.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고백 하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괴로워만 했다고요. 이 책은 장애가 있든 없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했을 때 함께 행복해진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064. 엄마에게

서진선 글 · 그림 | 보림 | 2014년 | 42쪽 | 평화



6.25전쟁을 알고 있나요? 우리 나라는 1950년도에 남과 북이 싸우는 전쟁이 터졌답니다. 전쟁은 가족을 다 헤어지게 만들지요. 이 그림책 속 주인공도 엄마와 헤어져 영원히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엄마가 보낸 봉숭아 씨를 받아 심어서 꽃을 보면서 엄마가 자주 부르던 봉숭아 노래를 불러봅니다. 그리움이지요. 아픔이지요. 전쟁은 어디에도 일어나지 말아야 해요.



065. 엄마와 나

레나타 칼린도 글·그림 | 김보람 옮김 | 불의여우 | 2019년 | 32쪽 | 관계의 소중함-가족

〈엄마와 나〉는 입양가족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이에요. 나는 어느 날 엄마 집에서 함께 살게 되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엄마와 내가 다르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고양이, 나는 강아지거든요. 엄마는 외모가 서로 다른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대신 엄마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엄마와 나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워갑니다. 가족의 형태는 양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등 다양합니다. 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는가 하면 입양으로 가족이 된 경우도 있어요. 이 책은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가족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임을 느끼게 합니다.



066. 완벽한 아이 팔아요

미카엘 에스코피에 글·마티외 모데 그림 | 박선주 옮김 | 길벗스쿨 | 2017년 | 30쪽 | 관계의 소중함-가족

바티스트는 완벽한 아이예요. 밥투정도 하지 않고, 잠도 일찍 자고, 예의바르고, 공부도 잘 하고, 투정부리지도 않아요. 곤란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야말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바라는 완벽한 아이예요. 사실 바티스트는 부모가 낳은 아이가 아니예요. 뒤프레 부부가 아이마트 쇼핑에서 사온 아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바티스트가 돌발행동을 해요. 뒤프레 부부는 고객센터에 가서 수리를 부탁하는데... 정말 완벽한 아이가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부족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사랑해 줄 수는 없는 걸까요? 이 책은 내가 가족에게 완벽한 것을 바라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예요.



067. 왜 내 동생이죠?

레베카 오로스코 글·로사나 파리아 그림 | 유 아가다 옮김 | 고래이야기 | 2015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내 동생이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다면 나는 어떨까요? 왜 하필 내 동생이, 다른 친구들 동생은 멀쩡한데 내 동생은 왜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 그림책 속 주인공도 처음에는 그랬지요. 하지만 동생과 잘 놀아 주기도 하고 동생과의 일들을 일기로 5년 동안 기록합니다. 동생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동생은 잘 웃어주니까요. 사랑이 있으면 장애에서 오는 편견은 없어 진답니다.



068. 우리 할머니는 100살이에요

에이미 채 글 · 안젤라 페리니 그림 | 홍연미 옮김 | 웅진주니어 | 2020년 | 36쪽 | 관계의 소중함-가족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친구들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100번째 생일, 100개의 선물, 100개의 초는 이 책의 주인공인 어린 손자에게 어마 어마한 숫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100번째를 맞이하는 할머니의 생일 파티가 어떻게 열리게 될지 몹시 궁금합니다. 할머니의 100번째 생일에 벌어진 일을 상상하고, 생일 선물을 어떤 걸로 할지 고민을 하고,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안쓰러워하며, 진심을 다해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하는 어린 손자의 모습이 참으로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서로를 위하는 할머니와 손자를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됩니다.



069. 우리는 딱이야

민 레 글 · 댄 샌택 그림 | 신형진 옮김 | 보물창고 | 2020년 | 40쪽 | 관계의 소중함-가족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로, 엄마의 차에서 내린 아이는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갑니다. 아이와 할아버지는 먹는 음식이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묻지만 할아버지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대답을 하고 둘 사이는 냉랭해집니다. 그러다 아이가 그림 그릴 종이와 색연필을 꺼내고 할아버지 또한 스케치북과 붓을 들고 옵니다. 그림 도구를 앞에 두고 만난 아이와 할아버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말이 없어도 그림으로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다리를 만들고, 그렇게 가까워져 가게 된 것이지요.



070. 우리는 학교에 가요

황동진 글 · 그림 | 낮은산 | 2012년 | 44쪽 | 교육받을 권리

우리는 매일 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당연히 학교에 갈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지구의 다른 곳곳은 당연히 누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이 그림책 속 케냐, 캄보디아, 콜롬비아, 네팔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만 아주 힘들게 가야해요. 밀림을 지나야하기도 하고,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밧줄로 건너야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집 안 일을 해야 해서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071. 위를 봐요!

정진호 글 · 그림 | 은나팔 | 2014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매일 눈길을 주던 곳에서 벗어나 오늘은 다른 곳을, 다른 시선으로 한 번 바라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몸이 불편하여 집 아파트에서 늘 아래만 내려다보던 아이에게 어느 날 위를 쳐다보는 한 아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곤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도 변화를 느껴요. 좀 다르게 바라보세요. 어제와 다르게 보는 눈과 마음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맞이 할거예요.



072. 이까짓 거!

박현주 글 · 그림 | 이야기꽃 | 2019년 | 32쪽 | 관계의 소중함

학교에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면? 더구나 다른 친구들은 누군가 우산을 가지고 오는데, 나만 마중 나올 사람이 없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조금은 서글프지 않을까요? 분홍색 옷을 입은 주인공이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학교 현관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 준호가 나타나서 “넌 안 가냐?”고 묻습니다. 우산이 없기는 준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준호는 비가 오든가 말든가, 우산이 있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는지 편의점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합니다. 주인공은 준호와 함께 경주를 하면서, 비를 맞고 달리는 게 더 이상 서글프지 않게 됩니다. 준호랑 헤어져 혼자 달릴 때도 ‘이까짓 거’ 하면서 씩씩하게 뛰어갑니다. 비를 맞으며 달리는 동안 마음이 한 뼘 자랐나 봅니다.



073. 잘 노는 숲속의 공주

마강 글 · 신타 아리바스 그림 | 후즈갓마이테일 | 2020년 | 40쪽 | 자신의 소중한

아이들은 어떤 연령에 도달하면 특별한 색에 집착을 하게 돼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자 아이들은 파랑을, 여자 아이들은 분홍을 좋아하지요. 그것은 학습된 것일 수도 있고, 스스로 원해서 일수도 있어요. 숲속에서 노는 걸 좋아하던 주인공도 어느 날부터 분홍 공주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해요. 그래서 공주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분홍 리본을 달고, 유리 구두를 신었지만 하나도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들 모두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 하지만 숲속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주인공은 특별해 보여요. 자신만의 색깔을 찾았을 때 가장 나답고, 특별해 보인다는 것을 주인공도 알게 되었겠지요?



074.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이현혜 글 · 이효실 그림 | 천개의바람 | 2015년 | 36쪽 | 관계의 소중함

나라와 나라, 길과 길, 물건과 물건 사이에는 선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경계선이라고 부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는 걸 잊고 지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상대방의 기분과 형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넘고는 하지요.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은 누군가 나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말하라고 해요. 특히 사람마다 존중받아야 하는 신체 · 물리 · 언어 · 정서적인 개인적인 영역이 존재하므로 이것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075. 지구 엄마의 노래

윤여림 글 · 윤지희 그림 | 문학동네 | 2012년 | 30쪽 | 아동인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세계 어디에선가는 아동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지요. 이 책은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자라는 아이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아이의 현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생일 선물로 꽃을 받은 아이와 꽃밭에서 일하는 아이, 새 옷을 입는 아이와 목화농장에서 일하는 아이, 초콜릿을 먹는 아이와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를 나란히 보여주지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누리는 행복이 누군가의 고통에 의해 얻어질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해요. 또한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다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게끔 합니다.



076. 징검다리 - 어느 난민 가족의 여행

마그리트 루어스 글 · 니자르 알리 바드르 사진 | 이상희 옮김 | 이마주 | 2018년 | 44쪽 | 평화

아침마다 잠을 깨우는 수탉 소리, 엄마가 차리는 밥상, 햇볕이 달군 땅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 아빠와 애기 나누던 오렌지 나무 아래, 뛰어놀 자유, 학교에 갈 자유, 이웃과 차를 마실 자유... 이것들은 사소하지만 라마에게는 소중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라마 가족은 이 모든 것들을 고향에 남겨두고 멀리 떠납니다. 전쟁을 피해, 평화와 자유를 찾아서요. 이 책은 글이 주는 내용도 감동적이지만 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멩이를 이용해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요, 이 작업을 한 작가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 사연을 찾아보세요.





077. 찬이가 가르쳐 준 것

허은미 글 · 노준구 그림 | 한울림스페셜 | 2017년 | 33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이 책은 장애아가 있는 가족의 일상을 통해 장애 가족의 힘들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힘들 속에서도 일상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찬이네 가족 모습에 따뜻하게 그려지고 있고요.

‘내 동생’ 찬이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혼자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런 찬이를 돌보느라 엄마의 하루는 고단하고, 찬이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과도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찬이로 인해 힘든 일도 많지만, 찬이 때문에 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찬이 누나인 ‘나’ 역시 찬이 때문에 서운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고요.



078. 친해질 수 있을까?

츠지무라 노리아키 글 · 하지리 토시가 그림 | 유문조 옮김 | 스킨라 | 2017년 | 32쪽 | 관계의 소중함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친구랑 짝궁이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주인공 나는 운동회에서 자신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그 녀석’과 이인삼각 경기를 하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둘은 연습경기에서 티격태격하다 결국 넘어지게 되지요. 하고 후 남아서 연습을 해보지만 여전히 호흡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를 통해 둘은 한마음이 되고 운동회도 무사히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둘의 성향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었을 뿐이지요.



079. 카미와 야크

앤드리아 스티븐 스트리어 글 · 버트 도드슨 그림 | 정희성 옮김 | 보림 | 2017년 | 56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미국에 사는 작가는 네팔을 여행하면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소년은 청각장애 때문에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독창적인 몸짓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곤 했습니다. 작가는 그 소년을 모델로 하여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지요. 청각장애를 가진 주인공 카미가 천둥번개가 치는 곳은 날씨 속에서 길 잃은 야크 가족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과정이 긴박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아버지와 형에게 야크 가족이 있는 곳을 알려주기 위해 다양한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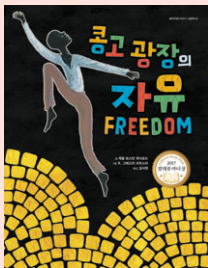




080. 커다란 포옹

제롬 쥐에 글 · 그림 | 명혜권 옮김 | 달그림 | 2019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노란색인 아빠와 빨간색인 엄마가 만나 주황색인 내가 태어나요.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헤어지게 되고, 파란색인 새로운 아빠와 초록색 여동생을 만나고, 곧 보라색 남동생이 태어나게 되지요. 노랑, 빨강, 파랑으로 가족의 탄생과 헤어짐, 새로운 만남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책이에요. 요즘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지요. 결혼 했다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가정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아빠나 엄마가 둘일 수도 있지요. 이 책은 그런 가족 형태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가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는 책입니다.



081. 콩고 광장의 자유

캐럴 보스턴 워터포드 글 · R. 그레고리 크리스티 그림 | 김서정 옮김 | 밝은미래 | 2018년 | 40쪽 | 차별 · 편견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에는 콩고 광장이라 불리는 곳이 있어요. 공연이나 행사가 자주 열리는 이곳에 콩고 광장이란 이름이 붙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어요. 뉴올리언스에는 아프리카에서 노예사냥꾼에게 잡혀 온 노예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지요. 딱 하루 일요일만 빼고요. 일요일 오후가 되면 이들은 옷을 곱게 차려입고 콩고 광장에 모여 아프리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한나절 동안 주어진 자유를 맘껏 즐겼죠. 이 책에는 그 일요일 오후를 기다리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든 노동을 견디는 노예들의 삶이 담겨 있어요. 강렬한 그림과 노랫말 같은 짧은 글에서 그들의 힘겨운 삶과 콩고 광장에서의 자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082. 쿵쿵이는 몰랐던 이상한 편견 이야기

허은실 글 · 조원희 그림 | 풀빛 | 2018년 | 48쪽 | 차별 · 편견

쿵쿵이 짝꿍 마리가 어느 날 이상한 안경을 쓰고 나타나요. 그러고는 편을 갈라요.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애들을 따돌리거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곤 하지요. 쿵쿵이는 우연히 마리가 벗어둔 안경을 써보는데 그건 사람을 제멋대로 판단하는 안경이었어요. 쿵쿵이 엄마는 마리의 이상한 안경처럼 한 가지만 보고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해요. 쿵쿵이는 엄마와의 얘기를 통해 편견은 어떤 것인지, 편견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를 알게 되지요. 또 편견은 나와 남을 가르는 벽이라는 것도요. 이야기 끝에 쿵쿵이가 들려주는 편견을 버리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083. 평등한 나라

요안나 올레흐 글·에드가 봉크 그림 | 이지원 옮김 | 풀빛 | 2018년 | 68쪽 | 차별·편견

에갈리타니아 행성에는 파랑 곰과 분홍 곰, 곰들이 살아요. 곰 헌법에는 모든 곰은 평등하다고 쓰여 있어요. 대통령도, 은행장도, 방송국 사장도, 정당 대표도, 회사 임원도, 종교 지도자도 모두 평등의 중요성을 얘기하지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파랑 곰이에요. 어느 날 분홍 곰이 정말 모두가 평등한 지를 묻고, 서로 다른 입장이 되어보자고 제안을 해요. 서로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르게 보이니까요. <평등한 나라>는 에갈리타니아 행성에 사는 곰들을 통해 일자리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에 대해 생각해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기회나 승진, 임금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요.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084. 피아노 소리가 보여요

명수정 글·그림 | 글로연 | 2016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소리를 본 적이 있나요? 소리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요? 이 책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아리아'와 변주곡 1번부터 4번까지를 피아노로 연주한 것처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소리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음을 시각화해서 청각장애를 가진 독자들이 피아노 음악을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또한 음을 표현한 크고 작은 동그라미들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특수한 가공을 해서 손으로 만져보는 재미를 느끼게 해 줍니다.



085. 하늘을 만든다

무라오 글·그림 | 김숙 옮김 | 스콜라 | 2018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환경

높은 건물이 줄지어선 거리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면, 마치 하늘이 퍼즐조각처럼 조각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숭이 화가가 사는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보다 더 심하죠. 마을 사람들이 앓다튀 건물을 세워 올린 탓에 하늘을 구경하기 힘들게 되었거든요. 하늘이 보이지 않자 마을주민들은 건물을 없애는 대신 온 동네를 하늘 그림으로 채우기로 하고 그것을 원숭이 화가에게 부탁합니다. 원숭이 화가가 건물들에 하늘을 그리는 동안에도 높은 건물은 계속 지어졌지요. 원숭이 화가는 하늘 그림을 그리면서 인기 화가가 되어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회의를 느껴 마을을 떠나기로 합니다. 진짜 하늘이 펼쳐져 있는 곳을 찾아서요.



086. 한부열의 선물

한부열 그림 · 전수빈 글 | 밝은미래 | 2017년 | 48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이 책은 글보다는 그림에 집중하게 됩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실을 뽑아 그물을 엮는 거미, 점찍기 놀이를 하는 무당벌레, 밝은 빛을 뿜내는 반딧불이, 나폴나폴 춤추는 나비 등이 시각적 즐거움을 주거든요. 이 책에 그림을 그린 한부열 작가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으며, 30cm 자를 이용해 수정 없이 단번에 그림을 완성하는 게 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087. 할머니의 식탁

오계 모라 글 · 그림 | 김영선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19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

〈할머니의 식탁〉은 작가가 어린 시절 보았던 할머니의 넉넉한 식탁 풍경을 추억하며 만든 그림책이에요. 작가는 할머니의 식탁을 통해 나눔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그것은 커다란 감동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야기 하지요. 오무 할머니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위해 커다란 냄비에 토마토 스투를 끓여요. 스투의 맛있는 냄새는 창문을 넘어 멀리 멀리 퍼져나가고, 그 냄새를 따라 이웃들이 하나 둘 찾아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자신이 먹을 스투를 아낌없이 나눠주지요. 그러다 그만 할머니의 냄비는 텅 비게 됩니다. 맛있는 저녁을 놓친 할머니는 우울한 기분이 되는데, 뜻밖에도 할머니를 위로해 줄 선물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 선물들과 함께 토마토 스투보다 더 근사한, 최고의 식사를 하게 된답니다.



088. 할머니의 용궁 여행

권민조 글 · 그림 | 천개의바람 | 2020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환경

태풍이 지나가거나 큰 장맛비가 오고나면 호수나 강에는 커다란 '쓰레기섬'이 생기곤 합니다. 모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각종 플라스틱들도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이 위험한 건 물 속에 사는 동물들이 그것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용궁 여행〉에도 플라스틱 때문에 시름시름 앓는 바닷속 동물들이 나옵니다. 해녀인 할머니가 낚잡한 광어를 따라 용궁에 가서 용왕과 동물들을 치료해 주는 이야기가 익살스러운 그림과 함께 흥미롭게 펼쳐지는데요, 책을 읽으며 바다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아요.



089. 행복한 가방

김정민 지음 | 북극곰 | 2018년 | 52쪽 | 아동인권

한 아이가 가방을 매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날아가는 풍선을 보더니 그것에 가방을 묶어 날려 보내지요. 하지만 얼마 못가 풍선이 터져서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이는 그 뒤로도 가방을 버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요. 그러한 시도들은 번번이 실패를 하고, 결국 가방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보던 엄마는 밤새워 새로운 가방을 만들어요. 엄마가 만든 새로운 가방을 받아든 아이의 표정이 매우 밝습니다. 엄마는 어떤 가방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글자 없이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이 책은, 오늘도 무거운 가방을 매고 학교로 학원으로 오가는 어린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줄 거예요.



090. 혼자가 아니야 바네사 - 작은 친절에 관한 이야기

케라스코에트 지음 | 웅진주니어 | 2018년 | 40쪽 | 관계의 소중함

전학 온 바네사는 늘 혼자예요. 학교 후 집으로 가는 길, 남작 아이 하나가 바네사에게 다가가더니 무섭게 화를 내요. 친구들과 함께 있던 노란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이걸 목격하게 되지요. 그 아이는 집에 돌아가서도, 밤이 되어서도 바네사를 떠올려요. 그러고는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 바네사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 아이와 바네사는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고, 아이들이 하나 둘 그들 곁으로 다가와요. 아이들에 둘러싸여 학교로 가는 바네사 표정이 무척 밝지요.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힘들어 한다면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나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091. 훈맹정음 할아버지 박두성

최지혜 글 · 엄정원 그림 | 천개의바람 | 2018년 | 44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박두성 할아버지는 한글 점자를 만든 분이예요. 한글 점자는 '훈맹정음'이라고도 불리는데 '눈 먼 이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박두성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맹아 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학생들에게 우리말 대신 일본말을 배우게 해서 학교에서는 한글 점자가 아닌 일본 점자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일본어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일본 점자는 어렵기만 했지요. 그래서 박두성 할아버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점자를 연구해서 여섯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한글 점자를 만들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점자를 만들고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점자책과 점자 잡지도 만드는 등 시각장애인과 사회가 소통할 수 있게끔 평생 많은 일을 했습니다.

2020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초등학교 교학년





092. 강냉이

권정생 글 · 김환영 그림 | 사계절 | 2015년 | 36쪽 | 평화

평화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평화를 빼앗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책은 집 모퉁이 토담 아래에서 한 아이가 가족과 함께 '강냉이(옥수수)'를 심는 평화로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강냉이가 무럭무럭 자라길 기다리는 아이의 평화로운 일상이 전쟁으로 인해 달라집니다.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나선 아이는 전쟁의 아픔과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토담 아래 심어 놓은 강냉이가 걱정입니다. '지금쯤 수염 나고 알이 났 키펬...'



093. 나는 슈갈이다

한영미 글 · 남궁선하 그림 | 어린이나무생각 | 2015년 | 168쪽 | 관계의 소중함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을 소재로 하는 동화책입니다. 때로는 신체적 폭력보다 말로 가해지는 폭력이 더 아프고, 상처가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책 속 주인공은 괴롭힘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다가 '방패말'로 슬기롭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가 쉽게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094. 나는 태양

우메다 순사쿠, 우메다 요시코 글 · 그림 | 이가웅 옮김 | 길벗어린이 | 2014년 | 204쪽 | 관계의 소중함

학교폭력으로 상처 받은 한 소년이 어린 유학을 통해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가며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 가야 형이 말한 '굵은 밧줄' (배와 배를 잇는 밧줄처럼 배가 바다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해주는 밧줄)처럼 '우리'라는 밧줄로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태양처럼 밝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095. 나만 아니면 괜찮을까

엘리자베스 버딕, 필리스 카우프만 굿스타인 글 · 신민재 그림 | 전지숙 옮김 | 길벗스쿨 | 2014년 | 128쪽 | 관계의 소중함

또래 집단에서의 왕따나 괴롭힘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의 주변인들에게 묻습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을까?” 라고. 그리고 책 표지를 통해 ‘친구의 아픔을 모르는 척하지 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돕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며, 역할극과 OX 퀴즈를 통해 재미있고 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096. 나무 도장

권윤덕 글 · 그림 | 평화롭품은책 | 2016년 | 60쪽 | 평화

제주4·3사건 당시 가족이 모두 학살 당한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한 평화와 인권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도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멋진 여행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섬은 아픈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작가는 주인공 시리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리석은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097. 내가 하고 싶은 여덟 가지

박준석 글 · 이지후 그림 | 주니어김영사 | 2020년 | 124쪽 | 건강권

〈내가 하고 싶은 여덟 가지〉의 저자는 2007년에 태어났고, 가슴기 살균제의 피해자이기도 해요. 가슴기에 있는 세균을 없애기 위해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살균제의 성분이 폐질환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 책에 실린 ‘내가 할 수 없는 여덟 가지’는 저자가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2019년 7월 국회의원상에서 읽은 글이에요. 운동을 못하고, 그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단소 같은 관악기를 볼 수 없고, 병원에 입원 하느라 학교를 자주 갈 수 없는 등 자신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글에 담겨 있어요. 이 책에는 그 외에도 저자가 쓴 여러 가지 글이 실려 있는데요, 가족과 친구, 학교생활 등에 관한 솔직하고 꾸밈없는 이야기가 재미난 그림과 함께 담겨 있습니다.



098. 너희는 꼭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

유춘하, 유현미 지음 | 낮은산 | 2018 | 32쪽 | 평화

이 책은 올해 아흔 살이 넘는 아버지와 그의 셋째 딸이 함께 그린 그림책입니다. 아버지 유춘하 씨는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났는데 6.25 전쟁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전북 익산에 정착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흐린 눈으로 자신의 아내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지막에 ‘숙녀’ 씨 그림을 그릴 때 약간 망설입니다. 지금 모습을 알 수 없어서, 상상해서 그려야하기 때문이지요. 네, 숙녀 씨는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헤어진 딸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에서 번번이 떨어진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음에 너희는 꼭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099. 노숙인 인권 학교

그자비에 에마누엘리 · 소피 보르테 글 · 레미 사이아르 그림 | 배형은 옮김 | 독 | 2017년 | 76쪽 | 함께 사는 세상

‘노숙인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에요!’ 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에요. 노숙인에 관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는 형식으로 엮여 있지요. 노숙인이 왜 생기는지부터 노숙인이 살아가는 모습, 노숙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노숙인을 제대로 이해하게끔 도와줍니다. 또한 노숙인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100.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류은숙 글 · 원혜진 그림 | 양철북 | 2015년 | 112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이 책에서는 재미있고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다양성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다양성은 숲과 같다고 합니다. 서로 버틸 힘을 마련해주고 곤란이 닥쳤을 때 해결 방법을 서로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하나의 소중한 ‘나’가 모여 ‘우리’가 됩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101. 닭답게 살 권리 소송사건

예영 글 · 수봉이 그림 | 프인돌어린이 | 2015년 | 152쪽 | 동물권

동물들도 슬픔과 고통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에 의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빼앗긴 동물들의 목소리가 담겨있습니다. 동물실험으로 고통당하는 실험실 동물들, 모피를 만들기 위해 고통 속에 목숨을 잃는 동물들, 작은 우리 안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 하는 동물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동물들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102. 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을까?

올라 블다인스카-프웨친스카 글 · 그림 | 김영화 옮김 | 우리학교 | 2020년 | 80쪽 | 동물권

곤충이나 동물이 살 수 없는 땅은 사람도 살 수 없다고 하지요. 그리고 지구의 주인은 인간들만이 아니라 동물과 곤충, 식물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동물들을 마음대로 지배하면서 자연을 함부로 대하곤 해요. 이 책에는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게 된 배경부터 동물을 괴롭히는 공장식 축산, 동물 실험, 동물의 권리, 동물의 감정 표현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36가지 동물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계동물권리선언과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실려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모든 생명은 하나이며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103. 돼지 이야기

유리 글 · 그림 | 이야기꽃 | 2013년 | 40쪽 | 동물권

2011년 우리나라 전국을 휩쓴 구제역과 그로 인해 살처분된 돼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돼지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외출은 커다란 구덩이였습니다. 아무리 동물이라도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할까요? 이 책을 통해 구제역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공장식 축산 방식 등 동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결코 편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을 모르는 척 덮고 지나쳐야 할까요?



104. 또 다른 연못

바오 파이 글 · 티 부이 그림 | 이상희 옮김 | 밝은미래 | 2018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

글을 쓴 바오 파이와 그림을 그린 티 부이는 베트남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어요. 이들도 이 책의 주인공 나처럼 이민자인 거지요. 책에는 이민자 가족의 고단한 삶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아빠는 출근하기 전 새벽에, 주인공 '나'와 함께 저녁에 먹을 물고기를 잡으러 연못에 갑니다. 엄마는 피곤했는지 잠을 자느라 이들이 집을 나서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온 뒤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갑니다. 형과 누나들에게 '나'를 잘 돌보라는 당부를 남기고요. 낯선 땅에 정착하기 위한 가족들의 삶이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슬프지는 않습니다. 아빠와 나, 그리고 가족들의 모습이 화목하게 보여서이지요. 서로를 위로하고 존중하며 힘든 나날을 이겨나가는 가족이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105. 똥 학교는 싫어요 - 대변초등학교 아이들의 학교 이름 바꾸기 대작전

김하연 글 · 이갑규 그림 | 초록개구리 | 2018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

부산에 있는 용암초등학교의 예전 이름은 대변초등학교였어요. 학교 이름 때문에 인터넷상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넌센스 퀴즈 책에 등장하기도 하지요. 이 학교 아이들은 다른 학교 다니는 아이들로부터 놀림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을 모아 학교 이름을 바꾸게 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일의 시작은 2017년 2월이었어요. 전교 부학생 회장으로 출마한 5학년 어린이가 선거 공약으로 학교 이름 바꾸기를 내 걸었어요.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공청회, 서명운동, 졸업생 대상 편지 보내기,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 이름을 바꿔야 하는 필요성을 알렸고, 결국 2018년 3월 이름을 바꾸게 되었답니다. <똥 학교는 싫어요!>는 그때 있었던 일을 조사하여 동화로 만든 것입니다.



106. 로지가 달리고 싶을 때

마리카 마이알라 글 · 그림 | 파루 살미넨 옮김 | 문학동네 | 2020년 | 56쪽 | 동물권

로지는 경주견입니다.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매일 트랙을 달리지요. 경주가 끝나면 로지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꿈을 꾸니다. 숲과 들판을 달리는 꿈요요. 다음 날, 이번에도 어느 때처럼 로지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넘습니다. 하지만 로지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경기장 울타리를 뛰어 넘어 거리로 나갑니다. 들판을 달리고 숲을 달리고 광장을 지나 바다를 건너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만나 그들과 함께 달립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달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로지 스스로가 달리고 싶기 때문에 달리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 자유는 로지가 얻어낸 것입니다.

2020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107.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 탐구생활

이기규 글 · 하안 그림 | 파란자전거 | 2018년 | 199쪽 | 인권의 이해

책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책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 탐구생활>은 인권이 무엇인지, 역사 속에서 인권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려주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인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한 자유를 누릴 권리와 사람답게 살게 해 주는 인권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권을 제대로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나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고 모든 이가 인권을 보장받았을 때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8. 매미

손 탠 글 · 그림 | 김정연 옮김 | 풀빛 | 2019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책장을 펼치면 매미라는 이름표를 단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분이 보입니다. 책장 가득 화색이 펼쳐지는데 그림의 톤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케 합니다. 인간들과 함께 고층빌딩에서 일하는 매미는 17년 동안 큰 무해함에도 인간들에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단지 매미라는 이유로 승진도 할 수 없고 화장실도 함께 쓸 수 없고 인간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심지어 은퇴할 때 파티도 약속도 없이 쓸쓸이 떠나야 합니다. 인간 무리에서 소외당하는 매미는 어쩌면 동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힘없는 누군가의 모습 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외면 받는 매미가 한없이 짝하고 애잔해 보이는데도요.



109. 모르는 척

우메다 신사쿠, 우메다 요시코 글 · 그림 | 송영숙 옮김 | 길벗어린이 | 1998년 | 220쪽 | 관계의 소중함

이 책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모르는 척 하는 방관자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나도 왕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으로 모르는 척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편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마음속에 간직한 등불이 꺼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110. 벨딩땅다람쥐 마을의 영웅 - 다람쥐 마을의 선거 이야기

피치마켓 글 · 곽관희 그림 | 피치마켓 | 2018년 | 183쪽 | 함께 사는 세상

이 책은 느린학습자의 언어적 특성, 기억력, 문해력, 자존감을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내용은 선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벨딩땅다람쥐 마을의 다람쥐들은 숲을 돌아다니며 도토리를 구했어요. 무사한 날도 있었지만 어떤 날엔 족제비나 독수리가 나타나 다람쥐를 잡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다웅이 아빠가 다람쥐들을 여러 번 위기에서 구해 주었어요. 다람쥐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다웅이 아빠를 대장으로 세웠어요. 대장이 된 다웅이 아빠는 다람쥐들을 위해 일하다 독수리에게 잡혀가고 다람쥐들은 새로운 대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대장 뽑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다람쥐들은 위기를 겪으면서 선거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111.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요시타케 신스케 글 · 그림 | 고향옥 옮김 | 토토북 | 2019년 | 32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지구에서는 지극히 보통이라고 여기는 앞만 볼 수 있는 두 개의 눈을 가진 비행사가 어느 별에 도착하고, 비행사는 그곳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뒤에도 눈이 달려 있어서 앞뒤를 볼 수 있는데 앞만 볼 수 있는 비행사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 별나라 사람 중 한 명은 비행사에게 별을 조사하면서 만난 다른 별 사람들 얘기를 들려줘요. 각각의 별마다 사람들 생긴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어느 곳에서는 보통이거나 당연한 것이 어느 곳에서는 특별하거나 이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말과 함께요. 작가는 다름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게 합니다.



112. 보이지 않는 이야기

이슬 글 · 김호민 그림 | 봄나무 | 2011년 | 163쪽 | 함께 사는 세상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삶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일터를 잃은 탄광 노동자, 철거촌의 주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는 이들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서 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113. 빨간 모자야, 어린이 인권을 알려 줘

요안나 올레흐 글 · 에드가르 봉크 그림 | 이지원 옮김 | 풀빛 | 2019년 | 88쪽 | 인권의 이해

빨간 모자와 함께 어린이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책으로 성냥팔이 소녀, 피노키오, 헨젤과 그레텔, 일곱 난쟁이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속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겪는 경험을 통해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준답니다.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성냥팔이를 강요당하는 소녀에게는 누구도 어린이를 때려서는 안 되며 어린이는 노동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헨젤과 그레텔에게 험악하게 얘기하는 마녀에게는 어린이의 존엄성을, 일곱 난쟁이 이야기는 어린이는 교육을 받고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지요.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114. 빼빼기

권정생 글 · 김환영 그림 | 창비 | 2017년 | 68쪽 | 평화

‘빼빼기’는 순진이네 암탉 ‘깜둥이’가 낳은 병아리인데요, 어느 날 아궁이 불에 데이고 맙니다. 솥털은 타 버리고, 부리는 문드러지고, 발가락은 떨어져 나가게 되지요. 그때부터 순진이를 비롯한 가족들은 빼빼기를 살뜰히 보살피게 됩니다. 빼빼기와 같이 태어난 병아리들은 물론 엄마인 깜둥이에게까지 버림받은 빼빼기를 가족들은 안타깝고 애달픈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빼빼기가 어느 병아리들처럼 잘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주지요. 작고 상처 입은 생명체를 향한 온 가족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도 순진이네 가족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115. 세계의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김현주 글 · 권송이 그림 | 사계절 | 2016년 | 136쪽 | 함께 사는 세상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왜 가난한 이들은 계속 존재하며 오히려 더 가난해 질까요? 이 책의 저자는 ‘빈곤’과 ‘빈곤의 해결책’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의 관점, 오랜 역사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빈곤 문제는 멀고 먼 남의 일이 아니라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16.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뀌요!

오승현 글 · 소복이 그림 | 토토북 | 2015년 | 104쪽 | 함께 사는 세상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로 인해 우리의 생각을 틀 안에 가두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 속에 담긴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올바른 표현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햇살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가지요.

117. 소금차 운전사

올란드 위크스 글 · 그림 | 홍한결 옮김 | 단추 | 2019년 | 84쪽 | 함께 사는 세상

소금차 운전사인 할아버지가 소금차 운전사로서 보내는 마지막 하루가 담긴 책으로, 잔잔하면서도 시린 그림이 할아버지의 독백과 함께 합니다. 할아버지는 겨울이면 언 길에 소금 뿌리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더 이상 소금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이제 소금을 뿌리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이지요.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소금차 운전사로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고 마지막 출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불을 끄고 가스레인을 끄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눈이 내리는 도로로 자신만큼이나 늙어버린 소금차를 끌고 나갑니다. 할아버지는 밤새 길에 소금을 뿌리고, 동이 틀 무렵에 서야 일이 끝납니다. 할아버지는 임무를 마치고 차에 달린 장치들을 하나 둘 끄는데요, 마지막 장면 때문에 쉽게 책을 덮기 힘듭니다.



118. 소년, 떠나다

레베카 영 글 · 맷 오토리 그림 | 장미란 옮김 | 한울림어린이 | 2016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

책장을 펼치면 배를 타고 홀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소년의 쓸쓸함이 한가득 느껴집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소년에 대한 안타까움은 더 해지지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 점처럼 떠있는 배, 거친 파도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소년, 칙칙같은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을 기다리는 소년. 하지만 그런 소년에게도 희망은 찾아옵니다. 오일페인팅으로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 이야기의 감동을 더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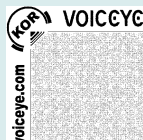




119. 소중한 사람에게

전이수 글·그림 | 웅진주니어 | 2020년 | 108쪽 | 함께 사는 세상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을 보다 보면 전이수 작가가 얼마나 특별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도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엄마와 동생, 삼촌, 나를 다정한 눈으로 살피며,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에도 시선을 던지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작가는 두려움에 떠는 고양이, 죽어가는 새, 위기에 내몰린 백곰, 플라스틱 세상, 지구 반대편에 사는 굶주린 사람 등 고통 받는 생명들에게도 마음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120.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데이브 에거스 글·손 해리스 그림 | 김지은 옮김 | 이마주 | 2020년 | 56쪽 | 함께 사는 세상

‘한 사람의 시민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시작해서 ‘시민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전에서는 시민을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도 시민의 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은 대개 어른의 것으로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만든 사회에서 어린이인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시민의 참여로 사회가 발전하여 좋은 사회가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21. 아빠의 술친구

김홍식 글·고정순 그림 | 씨드북 | 2019년 | 52쪽 | 관계의 소중함-가족

가정 폭력에 시달린 아이의 슬픔과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책입니다. 그림은 내내 어둡다가 아빠가 떠난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꽃이 피어납니다. 가정은 어린 아이들을 보호할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빠의 술친구>에 나오는 가정은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로 인해 불안하기만 합니다. ‘나’를 보호할 또 다른 의무가 있는 엄마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떠나고, ‘나’는 아버지의 폭력을 고스란히 받아내곤 하지요. 아버지에게 대한 분노도 엄마에 대한 원망도 쏟아내지 않는 아이가 안쓰럽고,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아이를 토닥여 주고 싶어집니다.



122. 아킴 달린다

클로드 K. 뒤브와 글·그림 | 김희정 옮김 | 청어람미디어 | 2013년 | 96쪽 | 평화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우리는 무작정 도망 가야할까요? 아킴은 달립니다. 전쟁의 무서움으로부터 도망 가야한까요. 누가 일으켰고,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전쟁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헤어져야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포로가 되어야 하고, 보호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이 전쟁이 끝나기는 할까요? 전쟁은 왜 일 어날까요? 아킴에게 평화로운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아킴은 달리고 또 달려요....



123. 안전 지도로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배성호 글·이유진 그림 | 초록개구리 | 2017년 | 88쪽 | 함께 사는 세상

이 책을 쓴 배성호 작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을 했는데, 그 경험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 안전한 곳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곳도 있어요. 안전지도는 그런 곳을 표시한 지도인데요 안전 지도를 만들면 그 과정에서 내가 사는 곳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고, 안전 의식도 생기고, 동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 책에 등장하는 4학년 2반 친구들도 담임선생님인 박배 샘과 함께 안전 지도를 만들어요. 또 지도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것이 결실을 맺기도 한답니다.



124. 어린 노동자와 희귀 금속 탄탈

앙드레 마르와 글·절리앵 카스타니에 그림 | 김현아 옮김 | 한울림어린이 | 2020년 | 64쪽 | 아동인권

탄탈은 희귀금속으로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해서 전자 제품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돼요. 탄탈은 콩고의 한 광산에서 캐어나요. 하루에 열두 시간씩 일하는 열 살짜리 소년에 의해서요. 이렇게 캐어난 탄탈은 세계 이곳 저곳을 여행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콩고 광산에서 탄탈을 채취하는 아이, 중국의 한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아이, 게임을 하느라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는 아이, 전자기기를 분해해서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골라내는 아이를 만나지요.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을 보는 셈인데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아동노동과 환경오염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 보게 될 것입니다.



125. 엄마의 꿈, 딸의 꿈

마리옹 르 이르 드 팔루아 글 · 솔랭 라르니콜 그림 | 김현아 옮김 | 한올림어린이 | 2020년 | 64쪽 | 차별 · 편견

1965년 7월 13일, 프랑스에서는 여성도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 여성은 아버지나, 오빠, 남편 등 남성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성들의 독립을 꿈꾸었던 클레르 엄마와 같은 여성들의 오랜 노력에 의해 법이 바뀌어 여성들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게 되었지요. 클레르는 의사인 엄마와 함께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갔는데, 마을 사람들은 클레르 가족이 오기 전까지 여자인 의사가 있는 것도 모를 정도였지요. 클레르의 엄마는 사람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하며,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클레르 친구 실비와 실비 엄마에게도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줍니다.



126. 엘 데포 - 특별한 아이와 진실한 친구 이야기

시시 벨 글 · 그림 | 고정아 옮김 | 밝은미래 | 2016년 | 248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특별한 소녀의 특별한 성장기’라고 하기에는 시시는 특별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자라지도 않았어요. 다만 4살에 뇌수막염에 걸려 청각을 잃었고, 그것 때문에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녀였을 뿐이었죠. 청각 장애를 가진 엉뚱하고 발랄한 소녀인 시시가 학교를 다니며 겪는 경험과 감정이 솔직하고 유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127. 오늘은 5월 18일

서진선 글 · 그림 | 보림 | 2013년 | 32쪽 | 평화

5·18민주화운동 당시 한 가족이 겪었던 일을 아이의 시선으로 담아낸 그림책입니다. 아빠는 위험하니까 집 밖에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했으나, 누나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희생 되었고, 그날을 기억하는 희생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아직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치유해야 할 일입니다.



128. 오늘은 어린이날!

오늘 글 · 송진욱 그림 | 책속물고기 | 2016년 | 124쪽 | 아동인권

어린이라는 말은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어린이날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어린이 인권은 어떻게 존중받게 됐을까요? 존중받아야 할 어린이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 어린이 인권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게 돼요. 유언으로 '어린이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날만큼 어린이들을 사랑한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게 해 줍니다.



129. 우리 모두 틀림없이 다르다

김현식 외 글 · 이광진 외 그림 | 열다 | 2013년 | 184쪽 | 인권의 이해

이 책은 네 명의 저자가 네 가지의 큰 주제로 인권에 대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소한 이야기를 통한 인권이야기, 역사 속에서 인권을 위해 힘쓴 사람들의 사례, 세계인권선언,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130. 우리 아빠는 행복한 노동자예요 -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노동 이야기

유혜진 글 · 이유나 그림 | 책임는달 | 2019년 | 64쪽 | 노동권

하준이는 고원동이라는 동네의 어린이 기자단이에요. 이번 달 주제는 노동자예요. 하준이는 같은 2학년인 윤이와 함께 짝을 지어 노동자들을 취재해요. 여행사 과장인 윤이 아빠를 취재하고, 업사이클 상상 공장에서 일하는 할머니들과 인터넷 설치 기사인 하준이 아빠와 가사노동자인 하준이 엄마를 인터뷰 하지요. 이 책은 하준이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노동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해줘요. 특히 요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기준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가사노동,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 줍니다.



131. 우리 엄마는 청소노동자예요!

다이애나 콘 글 · 프란시스코 델가도 그림 | 마음물꼬 옮김 | 고래이야기 | 2014년 | 32쪽 | 노동권

주인공 카를리토스의 엄마는 청소노동자입니다. 카를리토스의 엄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파업을 시작합니다. 카를리토스는 엄마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아름다운 팻말을 만들어 시위 현장에서 함께 행진합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우리 엄마는 청소노동자예요.’



132. 우리, 옆에 있어요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소소한 소통 글 | 소소한소통 | 2019년 | 71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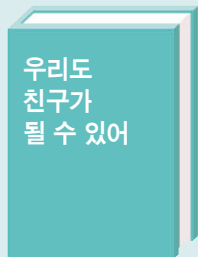
〈우리 옆에 있어요〉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된 이들에 대한 네 편의 이야기예요. 직업군인이었다가 사고로 다리를 잃게 된 뒤 장애인식개선 강사가 된 아빠, 경추손상장애를 입은 후 휠체어 럭비 선수가 된 홍태표 선수, 정형외과 전공의 수련 때 다리를 다쳐 재활의학과 의사가 된 동구 선생님, 호주 유학생활 도중 급성 횡단성 척수염으로 장애를 갖게 된 후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된 희지 이모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장애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지만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로 인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지요. 장애를 갖기 전처럼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133. 우리가 원주민 마을에 간 이유는?

오웬 긴즈버그 글 · 그림 | 임영신 옮김 | 초록개구리 | 2015년 | 60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개발이란 무엇인지, 개발이 사람에게나 자연에게나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책입니다. 세계에는 개발 때문에 자신들이 살던 땅과 삶이 망가진 소수 민족이 많고, 지금도 지구 어디에선가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소수 민족의 삶을 터전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개발업자들이 원주민 마을을 찾아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을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네 방식으로 행복하게 잘 살던 원주민의 삶과 터전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목격하게 되지요. 과연 개발은 꼭 필요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함께 고민해 보아요.



134.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어

다니엘 스테판스키 글 · 헤이즐 미첼 그림 | 전광철 옮김 | 고래이야기 | 2013년 | 48쪽 | 함께 사는 세상-장애

이 책의 저자는 자폐증이 있는 열네 살 소년입니다. 그래서 자폐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과 친해 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우리들이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을 잘 이해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기 위한 마음에서 라고 합니다. 자폐증이 있는 친구나, 그렇지 않은 친구나 우리는 모두는 서로 다르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135.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을까?

문미영 글 · 김언희 그림 | 크레용하우스 | 2018년 | 112쪽 | 인권의 이해

‘우리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작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인권은 침해받지만 우리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권을 침해받는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해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권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인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고,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게 합니다. 특히 성차별, 장애, 피부색, 따돌림 등 어린이들의 주변과 일상에서 일어나기 쉬운 차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나의 인권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136.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 씨

다니카와 순타로, 국제앰네스티 글 · 이세 히데코 그림 | 김향 옮김 | 천개의바람 | 2017년 | 32쪽 | 인권의 이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쓰지만 시란 씨는 비 맞는 것을 좋아해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란 씨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동료와 친구들은 시란 씨에 대해 수군거려다 나중에는 아무도 그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 나라에 사는, 시란 씨를 만난 적이 없어도 사람들이 그를 위해 장관에게 항의 편지를 쓰고 시란 씨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회원들로 세상은 연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신념으로 나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137. 인권아 학교 가자

이기규 글 · 김진화 그림 | 아이세움 | 2018년 | 92쪽 | 인권의 이해

아이들이 묻습니다. 맞을 짓이란 정말 있을까요? 왜 남자는 1번이고 여자는 왜 51번이에요? 소지품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왜요라고 하면 왜 안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질문하니깐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구요? 그것이 왜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이 책은 학교에서 마주치기 쉬운, 그리고 당연한 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는 인권 문제를 상황별로 보여 주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 후에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와 선생님들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을 알려주지요.



138. 자유 자유 자유

애슐리 브라이언 글 · 그림 | 원지인 옮김 | 보물창고 | 2019년 | 56쪽 | 인권의 이해

페어차일즈가에서 일했던 11명의 노예에 관한 이야기예요. 메리 페어차일즈 부인은 남편이 죽자 혼자서는 농장을 꾸릴 수 없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장을 팔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은 노예제도가 사라졌지만 200여년 전만 해도 노예는 농장주의 재산 취급을 받았고 사고파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지요. 페어차일즈가에서 일하는 노예들 대부분은 고향 아프리카에서 노예사냥꾼에게 잡혀 미국으로 팔려온 사람들이예요. 이들은 비록 페어차일즈가의 재산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의 몸에는 여전히 아프리카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가득하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139. 전쟁에 끌려간 어린이 병사

미셸 치과니네 제시카, 디 험프리스 글 · 클라우디아 다빌라 그림 | 마술연필 옮김 | 보물창고 | 2018년 | 48쪽 | 아동인권

‘군대에 동원된 18세 이하의 소년 · 소녀’를 어린이 병사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25만 명 가량의 어린이 병사가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 미셸도 반란군에게 잡혀가 어린이 병사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미셸이 태어난 콩고민주공화국은 한 때 벨기에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했어요. 하지만 나라 안에서는 전쟁과 갈등이 계속 됐고, 정부에 반대하는 반란군도 생겨났죠. 반란군은 어린이를 납치해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약탈을 하게 했는데 미셸도 다섯 살 때 반란군에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미셸은 어린아이가 경험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겪었고 다행히 탈출했지만 그때의 공포는 오랫동안 미셸을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혔어요.





140. 짜장면 왔습니다!

진수경 글·그림 | 책읽는곰 | 2017년 | 44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주인공 아공을 통해 화교들이 우리 이웃으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교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중국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중국 산둥에서 태어난 아공은 부모님을 따라 일본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왔어요. 아공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린 나이에 중국 음식점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중국 음식 만드는 것을 배워 나중에 자신만의 음식점을 차리게 돼요. 아공이 한국에서 사는 동안 6.25 전쟁도 나고, 외국인이 땅을 가지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생겨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공은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의 식당은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요. 지금은 그의 자식들이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답니다.



141. 천장 위의 아이

비베카 휘그렌 글·그림 | 강수돌 옮김 | 봄별 | 2020년 | 40쪽 |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우리가 사는 요즘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에 정착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사는 곳으로 찾아오는 이주민들도 있지요. 이들과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서로 살아온 삶의 방식의 차이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기도 해요.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낯선 이들이 ‘세삼’이라는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오는데 세삼은 참 많이 다른 아이예요. 천장에서 놀고 천장에서 컴퓨터를 하고, 외출을 할 때도 하늘 위로 올라가요. ‘우리’는 그런 세삼이가 낯설지만 차츰 세삼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 덕에 세삼이도 마음을 열게 되지요.



142. 초특급 비밀 프로젝트

조나 윈터 글·지넷 윈터 그림 | 마술연필 옮김 | 보물창고 | 2018년 | 48쪽 | 평화

세계 최초로 원자 폭탄을 발명한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프로젝트는 ‘장치’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세상에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된 곳에는 발명에 참여한 과학자들 외에 요리사, 청소부, 경비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장치’의 발명을 끝낸 과학자들은 마지막으로 실험을 했고, 사막 위에는 괴물처럼 생긴 버섯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어요. 약 258km 떨어진 곳에서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핵폭탄이 터진 것이지요. 핵폭탄은 태양보다 1만 배나 뜨겁고 폭발 장소에서 약 16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동·식물에게까지 위험을 줄 수 있으며,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노출된 방사성 물질은 24,000여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143. 춘희는 아기란다

변기자 글 · 정승각 그림 | 박종진 옮김 | 사계절 | 2016년 | 40쪽 | 평화

어느 초라한 집 마당에는 하얀 기저귀 빨래가 널려있습니다. 할머니의 아기 춘희는 마흔 세 살의 아기입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피해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은 춘희, 그 아이를 위해 엄마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노래를 부르고 또 부릅니다. 빨간 꽃과 주인공 아이, 그 아이를 통해 보여 지는 할머니의 한과 아련한 고국에 대한 향수가 그림 속에 아프게 묻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은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서로 조금씩 나누고, 보듬는 마음에서 들꽃이 받는 햇살처럼 우리에게 다가 오지요.



144. 토 사장과 초콜릿 공장

일리스 돌런 글 · 그림 | 홍연미 옮김 | 우리교육 | 2019년 | 32쪽 | 노동권

토 사장은 초콜릿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닭들은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은 초콜릿 달걀을 낳는 거예요. 토 사장은 초콜릿 달걀을 팔아서 부자가 되자 점점 욕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닭들에게 초콜릿을 더 많이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고 닭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하지요. 무리하게 돌아가는 공장 때문에 불량 초콜릿이 만들어지고, 닭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파업을 해요. 토 사장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장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는 공장을 행복한 일터로 탈바꿈 시킵니다. 이 책은 노동자의 권리를 어린이가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림책입니다.



145. 투명한 아이

안미란 글 · 김현주 그림 | 어린이나무생각 | 2015년 | 160쪽 | 함께 사는 세상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부모가 불법체류자라서 주민증이 없는 아이도 있어요. 어느 날 세 들어 살던 아주머니가 ‘눈’ 이라는 4살 먹은 아이를 두고 사라졌어요. 무국적 아이 눈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이 있어요. 이 책 속 두 아이는 눈이에게 우주 시민증과 우주별 여권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고 나누면서 함께 살아야 해요.



146. 하늘에

김장성 글 · 우영 그림 | 이야기꽃 | 2020년 | 36쪽 | 노동권

아이는 하늘을 올라다봅니다. 하늘엔 나뭇잎이 매달린 가지가 있고 높이 올라가는 풍선들이 있고 새들이, 비행기가 날아가고 구름 몇 조각이 흘러갑니다. 해가 지고 별이 빛나고 계절 또한 지나갑니다. 또한 하늘엔 광고판이 있고 송전철탑이 있고 크레인이 있고 굴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사람이 있습니다. 400일 동안 땅에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이요. 작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라다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합니다. 거기에 그들이 오랫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요. 옳다, 옳지 않다는 판단하기 전에 고공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 합니다.



147. 한국에서 부란이 서란이가 왔어요!

요란 술즈, 모니카 술즈 글 · 그림 | 황덕령 옮김 | 고래이야기 | 2018년(개정판) | 54쪽 | 관계의 소중함-가족

이 책은 한국에서 쌍둥이인 부란이와 서란이를 입양한 요란과 모니카 부부가 입양 과정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부란이와 서란이는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 누군가 두고 갔고, 간호사가 둘을 발견하게 돼요. 둘은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입양되기 전 서울에 있는 위탁가정에서 지내기도 해요. 그리고 둘을 입양하고자 하는 요란과 모니카 부부를 따라서 스웨덴으로 가게 되지요. 예전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가족이라고 했는 데요, 요즘은 꼭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이 돼요. 입양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인연으로 가족이 되었든 부란이와 서란이네 가족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며 보듬어줄 수 있는 가족이 참다운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148. 할아버지 손

마거릿 H. 메이스너 글 · 플로이드 쿠퍼 그림 | 서애경 옮김 | 꿈교출판사 | 2013년 | 30쪽 | 차별 · 편견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면 될까요? 과거에 백인들은 흑인들과 같은 수영장이나 운동장, 교회, 학교 같은 공공장소를 함께 사용하지 않았어요. 심한 차별이 있었지요. 이 그림책 속 할아버지는 빵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지만, 흑인이 만든 빵은 백인들이 먹지 않는다는 차별로 빵 반죽을 할 수 없었지요. 흑인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제는 손으로 뭐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음을 과거의 아픈 상처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149. 할아버지의 감나무

서진선 글 · 그림 | 평화롭품은책 | 2019년 | 38쪽 | 평화

전쟁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에게는 그것이 더 하겠지요. <할아버지의 감나무>에 나오는 할아버지는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평생 간직하고 삽니다. 할아버지는 많은 수의 감나무를 정성껏 가꾸지만 감을 시장에 내다 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감나무마다 이름표를 걸어줍니다. 그 이름표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어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라고만 말을 하지요. 어느 날은 손주가 들이민 장난감 총을 보며 할아버지가 기겁을 합니다. 왜 그런지 할아버지는 끝내 말을 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일기장을 통해 비로소 그 궁금함이 풀리게 되지요.



150. 혐오 - 재밌어서 한 말, 뭐가 어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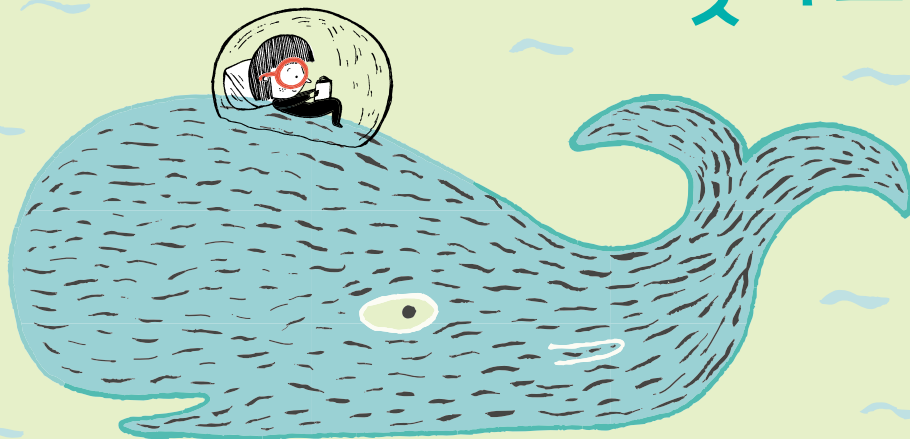
소이연 글 · 권송이 그림 | 우리학교 | 2019년 | 84쪽 | 차별 · 편견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재밌어서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말은 평생 잊지 못하게 되기도 하지요. 혐오는 대단한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장난삼아 내뱉은 말에 혐오가 담길 수 있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하는 말에 혐오가 담기기 쉽지요. 만약 그 말에 혐오가 담겨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멈출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 속에 숨겨진 혐오의 말들을 찾아내고, 그 안에 담긴 편견과 차별을 살펴보게 하지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도 해요. 상대방을 배려한 말 쓰기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보기로 해요.



2020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

찾아보기



- | | | |
|----------------------------|----------------------|-------------------------|
| 8 3초 다이빙 | 13 나의 독산동 | 18 떨어질 수 없어 |
| 8 6번길을 지켜라 똑딱 | 14 난민 친구가 왔어요 | 42 또 다른 연못 |
| 8 가난한 사람은 왜 생길까요? | 14 내 마음이 들리나요 | 42 똥 학교는 싫어요! |
| 9 가만히 들어주었어 | 14 내 엄마 아빠가 되어 줄래요? | 42 로지가 달리고 싶을 때 |
| 38 강냉이 | 4 내가 꿈으로 보이니? | 18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
| 9 강이 | 39 내가 하고 싶은 여덟 가지 | 43 마땅히 두려워 할 인권 탐구생활 |
| 4 같은 달 아래 | 15 내일 또 싸우자! | 18 마지막 뉴스 |
| 9 같이 놀자, 루이! | 15 내일의 동물원 | 43 매미 |
| 10 거리에 핀 꽃 | 15 너무나무 공주 | 19 메리는 입고 싶은 옷을 입어요 |
| 10 그해 가을 | 40 너희는 꼭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 | 43 모르는 척 |
| 10 긴 여행 | 4 넌 (안) 작아 | 19 목기린 씨, 타세요! |
| 11 나 좋은 점 가득 | 16 노각 씨네 옥상 꿀벌 | 19 원가 특별한 아저씨 |
| 11 나는 놀고 창조하고 상상할 권리가 있어요! | 40 노숙인 인권학교 | 20 미움 |
| 11 나는 바다 위를 떠도는 꼬마 난민입니다 | 16 누나에게 흔자만의 세상이 있어 | 20 바닷가 탄광 마을 |
| 12 나는 보이지 않아요 | 16 니나 | 20 바람은 보이지 않아 |
| 12 나는 소심해요 | 40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 21 바람을 가르다 |
| 38 나는 슈갈이다 | 41 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 44 벨딩땅다람쥐 마을의 영웅 |
| 38 나는 태양 | 5 더 커다란 대포를 | 21 벽 |
| 39 나만 아니면 괜찮을까 | 17 도둑맞은 이름 | 44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
| 39 나무 도장 | 41 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을까? | 44 보이지 않는 이야기 |
| 12 나무가 자라는 빌딩 | 41 돼지 이야기 | 5 보이지 않는다면 |
| 13 나미타는 길을 찾고 있어요 | 17 돼지꿈 | 21 비밀 |
| 13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할 거예요 | 17 뒤틀린 준범이 | 45 빨간 모자야, 어린이 인권을 알려 줘 |

22 빨간 볼
45 빼빼기
22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5 새로운 가족
45 세계의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22 세상에 돌도 없는 반짝이 신발
2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을
23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
46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뀌어요!
23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
46 소금차 운전사
46 소년, 떠나다
47 소중한 사람에게
24 소피가 속상하면, 너무너무 속상하면
24 숨바꼭질
47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4 아무도 지나가지 마!
47 아빠의 술친구
48 아킴 달리다
48 안전 지도로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25 알사탕
25 어디 있니, 윌버트?
6 어떤 느낌일까?
48 어린 노동자와 회귀 금속 탄탈
25 얼음 땡!
26 엄마 왜 안 와
26 엄마는 너를 위해
26 엄마에게

27 엄마와 나
49 엄마의 꿈, 딸의 꿈
49 엘 데포
49 오늘은 5월 18일
50 오늘은 어린이날!
27 완벽한 아이 팔아요
27 왜 내 동생이죠?
50 우리 모두 틀림없이 다르다
50 우리 아빠는 행복한 노동자예요
51 우리 엄마는 청소노동자예요!
28 우리 할머니는 100살이에요
51 우리, 옆에 있어요
51 우리가 원주민 마을에 간 이유는?
28 우리는 딱이야
28 우리는 학교에 가요
52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어
52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을까?
52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 씨
29 위를 봐요!
29 이까짓 거!
53 인권아 학교 가자
53 자유 자유 자유
29 잘 노는 숲속의 공주
53 전쟁에 끌려간 어린이 병사
30 좋아서 꺼안았는데, 왜?
30 지구 엄마의 노래
30 징검다리
54 짜장면 왔습니다!

31 찬이가 가르쳐 준 것
54 천장 위의 아이
54 초특급 비밀 프로젝트
55 춘희는 아기란다
31 친해질 수 있을까?
31 카미와 야크
32 커다란 포옹
32 콩고 광장의 자유
32 쿵쿵이는 몰랐던 이상한 편견 이야기
55 토 사장과 초콜릿 공장
55 투명한 아이
33 평등한 나라
33 피아노 소리가 보여요
56 하늘에
33 하늘을 만들다
56 한국에서 부란이 서란이가 왔어요!
34 한부엌의 선물
34 할머니의 식탁
34 할머니의 웅궁 여행
56 할아버지 손
57 할아버지의 감나무
35 행복한 가방
57 혐오 - 재밌어서 한 말, 뭐가 어때서?
35 혼자가 아니야 바네사
35 훈맹정음 할아버지 박두성



주제별로 찾아보기

건강권

39 내가 하고 싶은 여덟 가지

관계의 소중함

- 9 가만히 들어주었어
- 12 나는 보이지 않아요
- 38 나는 शुग़alı다
- 38 나는 태양
- 39 나만 아니면 괜찮을까
- 4 내가 꿈으로 보이니?
- 15 내일 또 싸우자!
- 17 도둑맞은 이름
- 43 모르는 척
- 22 빨간 볼
- 24 소피가 속상하면, 너무너무 속상하면
- 25 알사탕
- 25 얼음 땡!
- 29 이까짓 거!
- 30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 31 친해질 수 있을까?
- 35 혼자자 아니야 바네사

관계의 소중함-가족

- 14 내 엄마 아빠가 되어 줄래요?
- 5 새로운 가족
- 47 아빠의 술친구
- 26 엄마 왜 안 와
- 27 엄마와 나
- 27 완벽한 아이 팔아요
- 28 우리 할머니는 100살이에요
- 28 우리는 짝이야
- 56 한국에서 부란이 서란이가 왔어요!

교육받을 권리

- 28 우리는 학교에 가요

노동권

- 50 우리 아빠는 행복한 노동자예요
- 51 우리 엄마는 청소노동자예요!
- 55 토 사장과 초콜릿 공장
- 56 하늘에

동물권

- 9 강이
- 15 내일의 동물원

- 41 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 41 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을까?
- 41 돼지 이야기
- 42 로지가 달리고 싶을 때

아동성폭력

- 13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할 거예요
- 21 비밀

아동인권

- 48 어린 노동자와 희귀 금속 탄탈
- 50 오늘은 어린이날!
- 53 전쟁에 끌려간 어린이 병사
- 30 지구 엄마의 노래
- 35 행복한 가방

인권의 이해

- 11 나는 놀고 창조하고 상상할 권리가 있어요!
- 43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 탐구생활
- 45 빨간 모자야, 어린이 인권을 알려 줘
- 23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
- 50 우리 모두 틀림없이 다르다
- 52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을까?

- 52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 씨
- 53 인권아 학교 가자
- 53 자유 자유 자유

자신의 소중함

- 8 3초 다이빙
- 12 나는 소심해요
- 14 내 마음이 들리나요
- 15 너무나무 공주
- 17 돼지꿈
- 19 메리는 입고 싶은 옷을 입어요
- 20 미움
- 22 세상에 둘도 없는 반짝이 신발
- 29 잘 노는 숲속의 공주

차별 · 편견

- 16 니나
- 18 떨어질 수 없어
- 49 엄마의 꿈, 딸의 꿈
- 32 콩고 광장의 자유
- 32 쿵쿵이는 몰랐던 이상한 편견 이야기
- 33 평등한 나라
- 56 할아버지 손
- 57 혐오 - 재밌어서 한 말, 뭐가 어때서?

평화

- 38 강냉이
- 4 같은 달 아래

- 10 긴 여행
- 11 나는 바다 위를 떠도는 꼬마 난민입니다
- 39 나무 도장
- 14 난민 친구가 왔어요
- 40 너희는 꼭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
- 5 더 커다란 대포를
- 45 빼빼기
- 2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을
- 24 숨바꼭질
- 48 아킴 달리다
- 26 엄마에게
- 49 오늘은 5월 18일
- 30 징검다리
- 54 초특급 비밀 프로젝트
- 55 춘희는 아기란다
- 57 할아버지의 감나무

함께 사는 세상

- 8 6번길을 지켜라 똑딱
- 8 가난한 사람은 왜 생길까요?
- 10 거리에 핀 꽃
- 10 그해 가을
- 13 나미타는 길을 찾고 있어요
- 13 나의 독산동
- 40 노숙인 인권학교
- 17 뒤통수 준범이
- 42 또 다른 연못
- 42 똥 학교는 싫어요!

- 18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 18 마지막 뉴스
- 43 매미
- 19 뭔가 특별한 아저씨
- 20 바닷가 탄광 마을
- 44 벨딩땅다람쥐 마을의 영웅
- 44 보이지 않는 이야기
- 22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 45 세계의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 23 세상에서 가장 웅감한 소녀
- 46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뀌어요!
- 46 소금차 운전사
- 46 소년, 떠나다
- 47 소중한 사람에게
- 47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24 아무도 지나가지 마!
- 48 안전 지도로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29 위를 봐요!
- 55 투명한 아이
- 34 할머니의 식탁

함께 사는 세상-다양성

- 11 나 좋은 점 가득
- 4 년 (안) 작아
- 40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 19 목기린 씨, 타세요!
- 21 벽
- 25 어디 있니, 윌버트?



51 우리가 원주민 마을에 간 이유는?

54 짜장면 왔습니다!

54 천장 위의 아이

32 커다란 포옹

34 할머니의 용궁 여행

■ 함께 사는 세상-장애

9 같이 놀자, 루이!

16 누나에게 혼자만의 세상이 있어

20 바람은 보이지 않아

21 바람을 가르다

44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5 보이지 않는다면

6 어떤 느낌일까?

26 엄마는 너를 위해

49 엘 데포

27 왜 내 동생이죠?

51 우리, 옆에 있어요

52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어

31 찬이가 가르쳐 준 것

31 카미와 야크

33 피아노 소리가 보여요

34 한부열의 선물

35 훈맹정음 할아버지 박두성

■ 함께 사는 세상-환경

12 나무가 자라는 빌딩

16 노각 씨네 옥상 꿀벌

33 하늘을 만들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
입법 · 사법 · 행정부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 국가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인권 관련 법 · 정책 · 제도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국내외 인권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 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상담 **국번없이 1331**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인권 분야의 다양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인권전문도서관으로

- 인권정보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소장자료 검색과 위원회 간행물 정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인권영화 상영회,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각 인권사무소에는 인권도서관 분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화 **02-2125-9680~3** 홈페이지 library.humanrights.go.kr

